

2023
No.118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BULLETIN



미래를 향한 일진의 혁신은 세계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진은 글로벌 No.1 자동차 휠 베어링 메이커로서
지난 50년간 쌓아온 기술력과 혁신으로
미래 모빌리티 분야를 선도 하겠습니다



- 휠 베어링 ● 트랜스미션 베어링 ● Axle Roller 베어링 ● EV모터 베어링 ● 초경량 베어링
- 산업용 베어링 ● Truck&Trailer 베어링 ● Chassis & Suspension ● SWG & SI Module ● AMR 휠 구동 시스템

휠 베어링과 샤시부품에서 산업용 베어링, 로봇 부품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품질과 서비스로 전 세계 고객들과 함께 합니다

ILJIN

국내법인 | ILJIN GLOBAL • ILJIN GLOBALHOLDINGS • ILJIN BEARING • ILJIN CORP • BEARING ART

해외법인 | 미국 ILJIN USA • ILJIN AMERICA • ILJIN ALABAMA 중국 ILJIN TIANJIN • ILJIN BEIJING • ILJIN CHONGQING • ILJIN JIANGSU • ILJIN SHANGHAI

유럽 ILJIN GmbH • ILJIN MOTION & CONTROL GmbH • ILJIN SLOVAKIA 인도 ILJIN INDIA • ILJIN GLOBAL INDIA

판매사무소 | PARIS (FRANCE) • TURIN (ITALY) • PUNE (INDIA) • BEIJING (CHINA) • YOKOHAMA (JAPAN) • SAOPAULO (BRAZIL)

일진그룹 본사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27 Tel 02-553-1795 Fax 02-566-5621 www.iljin.com

일진그룹 부회장 이동섭(경영89)



대자연의 신비와 정취가
그대로 살아있는 컨트리클럽



국내최초 스코틀랜드
링크스 스타일의 정통코스

청주 Grand Country Club

전홀(27홀) 라이트 시설로 환상적인 야간 라운딩
넓고 평탄하게 전개된 코스
자연지형을 그대로 옮긴 울창한 수림

위치 | 옥산-오창 고속도로 서오창 IC에서 4km, 약 5분 거리

주소 |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꽃화산길 51-20

대표번호 | 043)212-7111

청주 Grand Country Club

대표이사 임재풍 (경영78)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

2023년 행사일정

* 아래의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일 시	행 사 명	장 소
2월 24일(금) 14:00	경영대학 학위수여식	인촌기념관
4월 10일(월) 18:00	상반기 상임이사회 및 취임식	취영루
4월 22일(토) 9:00	제1회 힐링트래킹	인왕산(청와대 뒷산)
5월 8일(월) 12:00	명예교수 사은회 오찬	패컬티 하우스
5월 13일(토) 14:00	경제포럼 (주제: 경제적 자유)	한강파크빌딩
6월 9일(금) 12:00	상반기 골프대회	사우스스프링스CC
8월 9일(수) 17:40	야구부 후원금 전달	그랜드컨벤션
9월 9일(토) 18:00	고연전 뒤풀이 축제	미 정
9월 22일(금) 12:00	경영대 OB 골프 고연전	클럽72CC
10월 5일(목) 12:00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선정회의	패컬티 하우스
10월 26일(목) 18:00	하반기 상임이사회	미 정
12월 1일(금) 17:00	제41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 (주관 : 96학번)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 1F)

KOREA UNIVERSITY BUSINESS SCHOOL ALUMNI



- 04_ 상임이사회
- 06_ 힐링트레킹
- 12_ 명예교수 사은회
- 13_ 경제포럼
- 14_ 상반기 골프대회
- 20_ 인터뷰
- 25_ 교우동정, 임원위촉
- 26_ 추모의 글
- 30_ 교우기부
- 31_ 교우기고
- 42_ 학번별
- 58_ 고대인의 날
- 60_ 경영대학 소식
- 61_ 회비납부명단

> 발견의 기념비

포르투갈 리스본에 위치한
대항해시대 기념비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보 호상 2023 통권 제118호 Vol.40

발행일 2023년 06월 29일
발행처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우회
발행인 이동섭
편집인 박창수
인쇄 (주)보림에스앤피 02-2263-4934
주소 02841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 13 (고대 교우회관 408호)
전화 02-922-3762
팩스 02-922-3763
이메일 kubs@kubs.or.kr
홈페이지 www.kubs.or.kr
입금계좌 하나은행 391-910009-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가격 3,000원



2023년

상반기 상임이사회 개최

일시 | 4월 10일(월) 18:30

장소 | 취영루

2023년 4월 10일(월) 오후 6시 30분 논현동 취영루에서 <2023년 상반기 상임이사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교우회장 취임식>도 함께 열렸다.

박창수(경영85) 사무국장의 사회로 1부 행사인 회장 취임식이 시작되었으며 신입회장 선출과정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새롭게 취임한 이동섭(경영89) 회장은 “경험과 연륜이 부족한 저에게 경영대학 교우회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크나큰 영광임과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역대 교우회장께서 그러하셨듯이 저도 경영대학 교우회의 훌륭한 전통을 계승하고 발전 시키는데 열과 성을 다하도록 할 것이다. 나이가 고대 위상을 드높이는데 작은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 오늘의 터전을 만들어주신 선배님들에 대한 존경을 바탕으로 보다 많은 젊은 세대들이 함께하도록 유익하고 즐거운 교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어 정몽원(경영74) 명예회장은 “더욱더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새로운 문화를 많이 만들어서 재미있고 즐거운 교우회를 운영해서 많은 교우들이 참여하는 장을 만들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부탁을 드린다.”며 당부했다. 김상용 경영대학장과 권성우 경영대학 부



학장도 이날 행사에 참석하여 신임 교우회장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이어 지난 경영대학 교우회 제8대 교우회장을 역임한 정몽원 명예회장에게 감사패를 증정하며 지난 4년간 경영대 교우회를 이끌어주시고 아낌없이 지원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인사를 표했다. 이어 한상일(경영90) 감사의 감사보고가 있었고 김평국(경영89) 부회장의 2023년 사업계획 보고가 있었다. 김평국 부회장은 “즐거운 교우회, 유익한 교우회가 되도록 회원교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이날 행사에는 63명의 교우들이 참석하였다.





경영대학
교우회

힐링 트레킹

2023년 4월 22일 토요일 오전 9시,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4년 만에 상반기 최대 행사인 '힐링트레킹'행사가 개최되었다. 2011년도부터 2018년도까지는 '걷기대회'라는 이름으로 잠실 한강공원에서 출발했던 이 행사는 2019년도에는 모교 캠퍼스에서 진행됐다. 2023년 '힐링트레킹'은 신임회장이 선출된 이후로 첫 공식행사이며 54년 만에 개방된 청와대 뒷길을 따라 걷는 코스로 변경되었다는 점이 특별하다.

오랜만에 개최된 이번 행사는 많은 관심과 호응 속에 220여 명의 교우가 참석하였고 특별히 전 총교우회장인 구자열(경영72) 명예회장과 승명호(무역74) 교우회장, 신호정(무역86) 대외협력처장, 권성우 경영대학 부학장 및 가수 성시경(사회00)교우, 재학생인 미스코리아 진 이승현(경제19)도 이번 행사에 함께했다.



이번 트레킹 행사는 춘추문 앞에서 집결하여 청와대 전망대, 대통문, 백악정을 지나 칠궁 뒷길을 순회하는 코스로 진행됐다. 코스 자체는 길지 않았지만 예전에 진행했던 코스보다 경사가 있는 오르막과 계단이 있어 긴장감이 있었다. 새순과 새잎의 싹을 지나 철쭉이 만개하여 곳곳이 울긋불긋 화려함을 자랑하는 아름다운 경치 속에 오랜만에 만난 교우들이 담소를 나누고 반가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으며 즐겁게 트레킹을 이어갔다.

인왕산 둘레길을 완주하고 식사 장소인 코리아나 호텔로 이동하여 휴를 이어갔다. 3월 말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와 4년 만의 야외 행사로 한껏 달아오른 분위기 속에 안종욱(경영89) 교우와 양지현(경영13) 교우의 사회로 두 번째 행사가 펼쳐졌다. 57학번부터 22학번까지 교우들과 재학생들

이 어우러져 즐겁고 맛있는 식사 시간을 갖고 유용창 교우 가족(Lilby, Cold Milk)의 공연과 그룹 피노키오 김민철씨의 공연을 관람하고, 경품추첨순서에는 많은 교우들이 경품에 당첨되는 행운을 안았다.

이동섭(경영89) 경영대학 교우회장은 “좋은 날씨에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나누셨길 바란다. 오늘 이 행사는 경영대 교우회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긴 코로나 이후로 3년 만에 처음 갖는 행사로 54년 만에 민간에게 개방된 인왕산 둘레길을 함께 걸었다. 다양하고 많은 학번의 교우들과 많은 여교우들도 참여한 행사가 되었다.”며 “다른 행사에 앞으로도 많은 교우님들이 참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찬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NO	성명	학번	찬조내역
1	구자열 전 총교우회장	경영72	상품권 300만원
2	이동섭 교우회장	경영89	온도변환 텀블러 20개, 차량용 공기청정기 10개
3	경영대학(김상용 학장)		아이스 텀블러 250개
4	이충진 KUBS Ladies 회장	경영81	스킨 부스터 20개
5	김평국 부회장	경영89	양말, 핑거클리너 각각 200개, 응원단 섭외 100만원
6	임춘택	무역89	고려대 캐릭터 인형 5개
7	허준홍 부회장	경영94	핑 드라이버 G430, 캐디백과 보스턴백 세트 1개, 파우치 10개
8	양지현	경영13	멀티비타민 세트 10개
9	우지산	농화학85	선크림 50개









스승의 날 명예교수 사은회

2023년 5월 8일(월) 오후 12시, 경영대학 교우회는 스승의 날을 맞아 교내 패컬티하우스에서 명예교수 사은회를 열었다.

이날 사은회는 명예교수 스물일곱 분 중 건강 문제로, 다른 스케줄로 불참한 열아홉 분을 제외하고 여덟 분(신수식, 윤영섭, 강호진, 이진규, 유관희, 문형구, 이만우, 김익수 명예교수)이 참석하였고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 박창수 사무국장이 자리를 함께하였다.

김상용 경영대학장은 이날 다른 일정이 있어 오찬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인사차 들렀으며, 여러 경영대 현직 교수들이 행사 시작전에 사은회 행사장에 방

문하여 명예교수들의 안부를 묻고 정담을 나누었다.

이동섭 회장은 모처럼 귀한 시간 내어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였고 신수식 명예교수를 비롯한 명예교수들은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의 취임을 축하하였다. 이후 건강 문제와 관련된 덕담이 오고 갔으며 최근 경제·사회의 동향 및 현재 재임 중인 회사 관련 소식과 근황을 나누며 회사의 번창을 기원하는 등 오찬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다.

경영대학 교우회에서는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건강 관련 선물을 준비하여 사은회 행사에 참석하신 명예교수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였다.



경제적 자유 경제포럼

경영대 교우회는 5월 13일(토) 독섬유원지에 있는 한강파크빌딩 지하 3층에서 '경제적 자유'를 주제로 제1회 경제포럼을 개최했다.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진행됐으며 85학번부터 19학번까지 경영대 교우면 참여가능한 행사로 38명이 참석하였다.

법원경매 회사를 운영 중인 한정훈(경영 12/보훈 대표)교우가 '경매의 정식-누구나 가능한 경제적 자유'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법학을 복수전공한 한정훈

대표는 학창시절 강의를 통해 경매에 입문한 계기를 소개하였으며 부동산 경매 가이드라인 설명하고 실제 사례를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강연을 마치고 Q&A시간을 통해 강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교우들은 "재밌었지만 생소하고 어려웠다.", "알고 싶은 분야였는데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감사하다"등의 반응을 보였다.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회

상반기 골프대회

사우스스프링스CC



2023년 6월 9일 금요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사우스스프링스 CC에서 63학년부터 13학년까지 60명이 참가하는 경영대학 교우회 상반기 골프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원 총장을 비롯하여 어윤대 전 총장, 전 총교우회장인 구자열 명예회장, 신호정 대외협력처장, 김상용 경영대학장, 베어트리파크 대표 이선용 교수, 삼양통상 대표이사 허준홍 교수, 글랜우드 대표 이상호 교수 등 주요 내빈과 90년대 고려대 농구부의 전성기를 이끈 '매직 히포' 현주엽 교수, 특별 게스트로 이번 골프대회에 참여한 프로골퍼 정예술, 개그맨 권혁수, 아이돌 SF9 주호 등이 함께 라운딩을 즐겼다.

사우스스프링스CC는 미국 유명 골프 코스 설계자인 짐 파지오가 설계하여 '103번뇌라고 별명이 지어진 103개의 bunker와 다양한 코스, 해저트가 있어 섬세한 플레이를 즐길 수 있으며 국제 대회(PGA)도 치룰수 있도록 규격에 맞게 설계되

어 있다. 이날 행사가 치러진 사우스스프링스CC는 센트로이드인베스트먼트 파트너스 대표이사인 정진혁(경영04) 교우가 제공했으며 특별히 클럽하우스 앞 국기 게양대에 모교 교기도 함께 게양하는 깜짝 이벤트로 참가한 교우들을 반갑게 했다.

일주일 전부터 행사 날 오전에 비 예보가 있어서 행사 진행을 우려했지만 행사 당일에는 구름 한 점 없는 파란 하늘과 맑은 공기로 60명의 참가자들이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날 대회는 80학번 이선용 교우가 신페리오 방식으로 70.2점을 기록하여 우승하였다. 71.0점을 기록한 98학번 한경선 교우는 여교우 중 1위를 차지했고 메달리스트는 80학번 김상연 교우가 차지했다. 또한 베스트포토상을 신설하여 참가자들이 더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행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골프대회 시상

우 승	이선용(80)	70.2점
우 승(여성부)	한경선(98)	71.0점
메달리스트	김상연(80)	72타
롱기스트	임정환(02)	250m
니어리스트	양지은(01)	1.0m
다파상	이상혁(89)	10개
다보기상	정진혁(04)	13개
베스트 포토상	마운틴7조 강진구(01), 김진만(02), 임정환(02), 이수용(03)	





베스트 포토상







찬조해 주신 분들

이동섭 교우회장 (89)	와인 텀블러 20개, 황남빵 68개
구자열 전 총교우회장 (72)	LS 10만 원 상품권 20장
경영대학 (김상용 학장)	텀블러 65개
최철원 부회장 (88)	워커힐 호텔 2박3일 숙박권 1장
김평국 부회장 (89)	맥주 240캔, 레드와인 20병
이상혁 (89)	건배용 샴페인 15병, 고급 위스키(Firkin) 1병
이상호 부회장 (90)	헬스맥스 스마트밴드 60개, 체중계 5개, 체성분계 5개
하준홍 부회장 (94)	위스키(KI.WON) 1병



라운딩을 마친 교우들은 한옥으로 된 만찬장 앞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에서 간단한 다과의 시간을 갖고 만찬장으로 이동했다. 양지현(경영13) 교우와 함께 진행을 맡은 안종욱(경영89) 교우는 “MC들 중, 학교 다닐 때 어윤대 총장님의 국제경영론을 들은 MC는 저밖에 없기 때문에 저를 특별히 MC로 초대한 거 같아 기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재치 있는 입담으로 2부 행사를 시작했다.

이동섭 경영대 교우회장은 “오늘 특별하고 재밌는 시간 보내셨을 거라 생각한다. 지난 4월 달 힐링 트레킹 행사 이후에 많은 교우님께서 교우회 행사에 큰 관심을 보여주셔서 상당히 고무적인 분위기가 됐다. 앞으로 다양한 학번의 교우님들이 많이 참여하는 행사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어 어윤대 전 총장은 “경영대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대한민국에서 명실상부한 최고의 대학이 되었고 세계 80위권에 진입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이 필요하다.”며 교우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했다.

이후 개그맨 권혁수 씨가 양지현 교우의 사회를 대신하여 안종욱 교우와 함께 시상식과 행운권 추첨시간을 진행하였다. 이번 행사에도 많은 교우들이 물품 찬조에 참여하였고 여러 번의 행운권 추첨 기회로 참가자 대부분이 골고루 혜택을 나누었다. 마지막 순서인 응원단의 공연으로 행운권 당첨의 기쁨으로 뜨거워진 열기에 흥을 돋우고 상반기 골프대회는 성황리에 종료했다.

이상호 부회장 (95)	올리브영 20만 원 상품권 10장
이동영 (02)	비트로 신발 상품 교환권 5장
백철운 (04)	테라건 마사지기 (프라임 3대, 미니 5대)
정진혁 (04)	만찬장소 대관료(100만원), 테일러메이드(남·녀 드라이버, 우드, 유틸리티, 웨지, 퍼터, 골프공 15더즌)
정민영 (10)	골프장갑 63개
경영대 교우회	머그잔 70개

HealthMax

ICT Based Tele-Healthcare Service Provider

Biogram

Interview

이상호 대표 (경영90)

■ 교우님과 회사에 대해 소개해주십시오.

저는 헬스맥스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90학번 이상호입니다. 저희 회사는 '누구나 누리는 건강한 삶'을 위해 혈압, 혈당, 체성분, 스트레스 등 37가지 항목의 측정이 가능한 헬스체크 부스를 관공서, 기업, 아파트, 학교 등에 설치하여, 그 구성원이 자신의 생활 환경 안에서 언제든지 편리하게 건강을 측정 한 후, 키오스크, 모바일 앱, 웹 페이지를 통해 자신의 건강 추세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측정데이터 기반 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는 스마트 헬스케어 서비스 '바이오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이오그램 서비스는 원래는 B2G(Business to Government) 대상으로 지자체나 관공서, 복지관, 체육센터 등에서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대사증후군 및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관리 형태로 서비스를 시작했었는데, 최근 코로나를 겪으면서 건강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다보니 기업체에서 임직원 건강관리에 부쩍 관심을 갖고 문의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

건강 경영 트렌드 속 커지는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시장... 바이오그램으로 임직원 건강 복지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으로 기업 리스크 관리

”

■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각광받고 있는데요. 어떠한 계기로 헬스케어 분야로 창업하시게 됐는지요?

일반대학원에서 마케팅 석사학위 취득 후, 병역 대체복무로 국책연구원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보건의로 관련 정책과 제도를 다루며 국내 보건의로 시장에 병·의원이나 제약회사가 아닌 다른 플레이어가 제공하는 의료와는 다른 차원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같이 근무하던 연구원 열 분이 의기투합해서 2003년 ‘건강세상만들기’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창업하게 됐습니다. 회사 초창기엔 금연, 절주, 영양, 운동, 성교육 등 콘텐츠를 기반한 건강증진 사업으로 시작했는데, 보건의로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예방, 관리로 변화하고 있음을 감지하고, 2009년 말 기존 건강콘텐츠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접목해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 심뇌혈관 등 대사증후군 관리에 특화된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으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헬스맥스라는 사명은 건강증진을 헬스 프로모션이라고 하는데 ‘건강을 최대치로 증진하자, 헬스를 맥시마이징하자.’는 뜻입니다.

■ 종전에 언급하셨던 헬스체크 부스, 바이오그램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요.

바이오그램존은 혈압계, 체성분계, 스트레스, 신장계, 혈당·콜레스테롤기 등의 측정 장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장비들을 컨트롤 하는게 지정맥 게이트웨이입니다. 지정맥은 나이가 들면 달기 쉬운 지문과는 달리 항상성과 유일성이 뛰어난 손가락에 흐르는 혈관 패턴으로 사용자를 인식합니다. 즉 각 측정 장비에서는 위조 및 복제가 일체 불가능한 사용자의 생체인증을 거친후 측정데이터를 받아 서버에 사용자의 DB에 데이터를 축적합니다. 이 때문에 사용자는 전국 어느 바이오그램존에서든 손가락을 대기만 하면 본인임을 인증받아, 측정 후 자신의 측정값을 DB에 쌓을 수 있으며, 바이오그램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자신의 건강 추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이오그램 존은 보건소,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전국 약 300여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대형마트, H&B 스토어와 제휴하여 3년 이내에 약 1500여 곳에 설치, 전 국민의 자신의 생활 반경 10분 안에서 바이오그램 존을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주민센터나 보건소 등이 아닌 바이오그램존 설치 장소는 어디인가요?

주로 기업 임직원이나 아파트 입주민, 대형 쇼핑 시설의 이용객들을 위해 저희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우 임직원 및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해 저희 서비스를 도입하는 사례가 작년 부터 급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스타필드, 한국자산관리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JDC) 등 대기업, 공기업의 사무직을 포함하여 삼성물산, 롯데건설, 롯데알미늄 등 제조, 건설업까지 다양합니다. 제조, 건설업 분야는 아무래도 근골격계 질환 관련 위해성이 크다 보니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 근로자들이 현장에 투입되기 전에 간단하게 체크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 설치된 곳도 있고요.

그 밖에는 래미안, 자이 등 아파트의 입주민 커뮤니티센터나 대형마트, 프리미엄 아울렛에 들어가고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경대, 남서울대, 대구보건대 등 대학교 내 설치도 늘고 있는데, 코로나 시기에 학생들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해요. 정신건강 상담, 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어서 학교에서 교직원, 학생들 건강관리에도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연세대 미래캠퍼스에 설치한 지 3개월 정도 됐는데 잘 운영되고 있어서 내년에는 관리자를 배치해서 운용범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기업이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를 위해 바이오그램을 도입하는 사례가 급증한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로 기업들이 건강 경영에 관심이 높아진 게 큰 것 같습니다. 임직원 건강관리 는 기업 생산성 및 지속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건강 문제로 인한 기업 손실의 60%는 출근 후 업무 효율성 저하 등 간접적인 손실이 더 크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기업의 손실은 단지 결근 및 조퇴에 따른 직접적인 근무 시간 상실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llegible]

임직원 건강관리에 투자 \$1
 +
 의료비 절감 \$3.3
 +
 엑센티움 절감 \$2.7
 +
 프레지덴츠 비움 절감 효과 \$12
 =
 총 비움 절감 효과 \$18

엑센티움은 직원 이용 월당 2,200원이며, 육 112 월당 효과

또한 이전엔 임직원 건강관리를 산업안전보건법으로 강제했지만, 지금은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보강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인해 기업의 리스크 관리차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중대재해처벌법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 재해가 사업장에서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2년 이상 징역형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법)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면 사업주(또는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의무가 책임으로 주어졌거든요. 요즘 회사에 재직 중인 임직원들의 평균연령이 올라가는 추세인데 만성질환이나 위해 요인을 갖고 있는 직원들이 많아지니까 그런 측면에서 미리 예방하고 뇌졸중, 심근경색과 같은 응급질환 발생 위험도를 미리 파악해서 대처하려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된 것 같습니다.

1. 건강검진

2. 바이오그램 존 (사립점)

3. 바이오그램 앱+웨어블 시스템

4. 바이오그램 분석자 페이지

5. 바이오그램 앱& 1:1 전문가 상담코칭

Biogram DATA
데이터 기반 건강분석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위험군
1:1 건강관리서비스

- 건강 검진
- 웨어블 기기
- 앱
- 데이터 수집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화

임직원 건강 모니터링 (위험군 선별)

기업 보건 관리자

유연 서비스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교수회보 • 23

■ 헬스맥스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있다면

헬스케어 회사인 헬스맥스는 예방쪽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당연히 치료는 의료기관의 몫이구요. 헬스맥스는 만성질환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사전예방과 이미 만성질환에 걸렸다면, 치료한 후 포스트 케어라고 하는 3차 예방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습니다.

■ 해외진출도 계획하고 계신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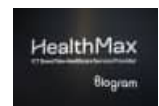
저희는 동남아, 아세안쪽에 포커스를 두고 있고 그중에 인구가 3억에 가까운 큰 나라인 인도네시아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코로나 직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정부간 MOU 체결과 시범사업을 통해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 기반을 어렵게 만들었는데, 3년 가까이 코로나 팬데믹 영향을 많이 지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한국과 다르게 의료접근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의사도, 병원도 부족하고요. 진료 및 처방을 받는 의료비도 생각보다 싸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사우나, 약국 등에서 쉽게 측정할 수 있는 혈압계, 체성분 측정도 인도네시아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국토가 좌우로 길고(비행기로 10시간), 많은 섬으로 이뤄져 있어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다 보니 원격진료를 일찌감치 도입하긴 했는데, 데이터 기반이 아닌 전화진료 위주로 진행하고 있어서, 원격진료 전문업체인 SehatQ 등과 협업해서 일상생활 반경내 접근이 쉬운 바이오그램존을 설치해 DB를 쌓아 원격진료에 활용하도록 하고 싶습니다. 언어 및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어려움은 있겠지만, 스마트헬스케어 서비스를 수행할 환경으로는 아세안 국가가 최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 앞으로 헬스맥스의 목표는 어떻게 되십니까?

최우선 목표는 측정 인프라 확대입니다. 2년내에 우리나라에 천군데 이상의 바이오그램존을 설치하여 원하는 이용자는 10분 내의 생활환경에서 측정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게 1차 목표입니다. 최종 목표는 이렇게 측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서 이용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B2B 고객의 경우 측정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용자들에게 맞춤형 정신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는 여러 가지 휴먼코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나아가 시나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예측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파트너들과 데이터를 기반한 서비스로 확장해 보고자 합니다.

■ 교수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많은 교수님, 선배님 중에는 최고경영책임자 또는 인사복지 담당부서에 근무하는 교수님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사실 회사마다 여러가지 리스크를 안고 있을텐데요, 그중 직원들의 근무 도중 발생하는 보건 및 안전과 관련한 리스크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인해 커지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방지 및 임직원 건강복지를 위한 헬스케어를 위해 저희 바이오그램이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교우동정



김기호 (경영79)

2023년 4월 28일
김기호 교우가
아성다이소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최준영 (경영82)

2023년 5월 11일
최준영 교우가
'제20회 자동차의 날'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한두희 (경영83)

2023년 3월 22일
한두희 교우가
한화투자증권 대표
이사에 선임되었다.



이종태 (경영86)

2023년 6월 30일
이종태 교우가
교보리얼코 신임
대표이사에 선임되었다.



정상훈 (경영87)

2023년 3월 13일
정상훈 교우가
에쓰오일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양정열 (무역88)

2023년 5월 23일
양정열 교우가 제30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에
위촉되었다.



윤재원 (경영89)

2023년 5월 4일
윤재원 교우가
회계기준위원회 비상임
위원에 선임되었다.



장형수 (경영89)

2023년 6월 21일
장형수 교우가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임
감사로 선출되었다.



배문성 (경영00)

2023년 6월 1일
배문성 교우가
라이프자산운용 ESG크레딧
팀장으로 선임되었다.

■ 결혼을 축하합니다.

이건희(경영72)

양승은(경영72/부회장)

정몽원(경영74/명예회장)

김성철A(경영79)

2023년 7월 15일 장남 용석 군

2023년 5월 13일 차녀 예인 양

2023년 6월 2일 차녀 지수 양

2023년 6월 3일 차녀 소연 양

최석준(경영02)

김혜린(경영10)

설유나(경영11)

2023년 5월 28일 본인 결혼

2023년 6월 10일 본인 결혼

2023년 5월 27일 본인 결혼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군하(경영55)

이강수(경영56)

이상일(상57/자문위원/92년 "올해의 교우상" 수상자)

이채영(경영61)

장영상(경영78)

2023년 4월 17일 본인 별세

2023년 4월 27일 본인 별세

2023년 6월 12일 본인 별세

2023년 5월 16일 부인상

2023년 4월 19일 모친상

류호찬(경영79)

손우택(경영79)

양희창(경영79)

주철수(경영79)

진채동(경영79)

송상준(무역87)

2023년 4월 11일 모친상

2023년 5월 9일 모친상

2023년 4월 12일 모친상

2023년 4월 19일 빙모상

2023년 5월 21일 부친상

2023년 5월 4일 본인 별세

■ 임원위촉

부회장

79학번

장치평

80학번

이선웅

85학번

정창훈

86학번

신호정, 정경모

89학번

김평국, 박종호, 서희원

90학번

민준선, 송승민, 이상호

94학번

김형인, 허준홍, 현주엽

95학번

신재욱, 이상호

00학번

천영석

상임이사

87학번

최윤석

89학번

김상표, 서영성, 이강훈, 한규제

이사

62학번

김종순, 안기정

知性と野性の 高大人



李相一
고대 경제인회 회장 역임
(상 57학번)

출생 · 별세

· 1938.6.10 - 2023.6.12 (향년85세)

학력사항

- 1957. 02 경기 상업 고등학교 졸업
- 1963. 02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졸업
- 1989. 07 서울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27기)
- 1992. 07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
최고국제관리 과정 수료(1기)
- 2000. 08 고려대학교 컴퓨터과학기술대학원
최고위정보통신과정(8기)
- 2003. 05 세종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 2005. 11 고려대학교 경영학 명예박사

李相一 회장님은 고려대 상학 57학번입니다. 고대 경제인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명예박사를 수여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운 교우’수상자입니다. 평생을 지성과 야성을 삶의 기준으로 여겼습니다. 산업계에선 ‘휠베어링의 아버지’로 불리었습니다. 회장님은 건강하셨으며 강직했습니다. 남에게 지기 싫어하셨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직원들 전문지식교육과 손자들 고등교육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못지않게 모교 고려대학교도 아꼈습니다.

1978년 단조사업을 시작으로 종합베어링 메이커인 “日進”을 창업하셔서 자동차용 휠베어링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시킨 분입니다. 세계시장의 34%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습니다. 세계시장 지배는 기술 중시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기술 혁신을 위해 한국, 미국, 독일을 잇는 R&D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습니다. 가격경쟁력을 위해 생산공정을 혁신적으로 자

동화하였습니다. 한국산 베어링 신화가 된 일진그룹은 현대, 기아 등 한국기업은 물론 생산품의 60%를 미국 Big 3와 유럽의 다임러, BMW, 아우디, VW, Stellantis, 르노닛산 등 우수 완성차 업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독일 경영학자인 헤르만 지몬이 말하는 작지만 세계시장을 지배하는 히든 챔피언(hidden champion)이 되었습니다.

일진그룹은 2022년 매출액 3조 6천억 원이며 6천명의 국내외 종업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10개 국가 18법인을 두고 있습니다. 성장성과 이익 측면에서 한국 최고의 명품 기업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고도화되어 전기차, 수소차의 비중이 높아진다 해도 일진 베어링을 장착한 자동차 바퀴는 굴러갑니다. 현대자동차 권유에 의해 베어링 국산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은 도리어 국제경쟁력 있는 베어링 생산으로 국산 차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 경력 사항

- 1960. 05 - 1961. 11 육군 (학보)
- 1963. 02 - 1973. 12 한국전력 주식회사
- 1973. 07 - 1982. 04 일진물산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장
- 1978. 12 - 2023. 06 (주)일진베어링 대표이사 회장
- 1982. 08 - 2023. 06 (주)일진글로벌 대표이사 회장
- 1986. 01 - 2023. 06 (주)일진 대표이사 회장
- 1993. 03 - 2001. 12 현대자동차 협력회 회장
- 1991. 02 - 2009. 02 무역협회 이사
- 1999. 02 - 2005. 02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2002. 01 - 2006. 01 고려대학교 경제인회 회장
- 2017. 10 - 2023. 06 (재)일진문화재단 이사장
- 2019. 07 - 2023. 06 (주)일진글로벌홀딩스 대표이사 회장

주요 수상 내역

- 1987. 03 동탑 산업 훈장 (기업 기술 개발)
- 1990. 11 생산성 우수 기업상 수상 (상공부)
- 1992. 12 '92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올해의 교우상' 수상
- 1994. 03 국무총리 표창 (조세의 날)
- 2000. 11 2000년 대한민국 기술대전 동상수상 (산업자원부 장관)
- 2001. 03 성실 납세상 수상 (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 2002. 05 금탑 산업 훈장 수상(중소기업인 부문)
- 2004. 11 1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05. 03 성실 납세상 수상 (대통령)
- 2006. 11 2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1. 11 무역의날 '3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2. 03 납세자의 날 '모범 납세자 표창'
- 2013. 11 무역의날 '4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5. 11 무역의날 '5억불 수출의 탑' 수상
- 2019. 05 '2019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

이상일 회장은 모교인 고려대학교의 경제인 회장을 4년간 역임하셨습니다. 아들인 이동섭 부회장도 김상홍 회장, 구두회 회장, 이양섭 회장 등 고명하신 한국 최대기업 CEO 등에 이어 지난 2월부터 제9대 고려대 경영대 교우회 회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고대 졸업생들은 모교에 대한 애교심이 강합니다. 그러나 이상일 회장님의 모교 사랑은 특출했습니다.

고려대학교는 현재 전 세계 80위의 세계 최고 대학이 되었습니다. 세계 일류대학과 어깨를 겨누는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이 회장님은 고대 발전을 위해 많은 연구비와 장학금을 기부하셨습니다. 경영대학에 '일진 창업센터'를 설립해 주셨습니다.

이중 화룡점정은 안암캠퍼스 앞 우람한 소나무 숲입니다. 25미터가 넘는 적송 130그루로 단장되었습니다. 고대 앞을 매일 지나다니는 이웃대학 총장은 "고대가 어떻게 저렇게 멋있게 되었나"하고 감탄합니다. 졸업생들이 안암캠퍼스 교문을 들어서면서

고색창연한 본관 건물과 어우러져 있는 소나무 숲을 보면서 환상적인 학교의 아름다움에 놀랍니다. 이 거대한 소나무들은 이상일 회장님이 기증하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런던대학 시스템 소속인 로얄 홀로웨이에 고대 교환학생의 편익을 위해 기숙사를 구입해 주었습니다. '고려대학 이상일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앞길 이름은 "이상일 로드"입니다.

지성과 야성을 몸에 지닌 이상일 회장님은 한국 자동차 부품사업 발전에 금자탑을 세웠을 뿐만 아니라 모교 고려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는데 혁혁한 기여를 하였습니다. 회장님은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일진에는 '생각지준'*이 같은 분들이 매일매일 정진하고 있으며 모교 고려대학도 국제경쟁력 있는 세계적 대학으로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고려대 15대 총장, (전)KB금융지주 회장 魚允大

* '생각지준'이 같은 분들 : 회장님의 경영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는 분들



고대 명예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식 (2005.11.15)



젊은시절 (1965년 전후)



제1기 고위국제관리과정 수료식(1992.7.13)



경영본관 앞 소나무, 개교 100주년 기념 모교에 소나무 130그루 기증 (2005)



일진창업지원센터 개원식 (2016.9.6)



제39회 경영대학 교우의 밤에서(2019.12.5)



일진창업지원센터 이동섭 교우회장, 이윤주 부회장과 함께 (2016.9.6)



저장식라운 고대인상 수상(2019.5.5)



85세 기부왕, “나에게 후하면 다른 이들에게 베풀 수 없다”

생애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모교에 드리고 싶은 소망 전해
2023년 5월 10억 기부, 누적 84억 원 고려대에 기부한 유휘성 교우

평소에 “생애 마지막까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고려대에 주고 싶다.”는 의사를 표했던 유휘성 대표는 2011년 모교를 방문해 신경영관 건립기금 10억원을 기부하였고 2015년에는 수표로 10억원을 발전기금으로 전달했으며 2017년도에는 거주하던 24억 원 상당의 50평 아파트를 모교에 기증하였다. 이어 2019년도와 2020년, 2022년에 각각 10억 원을 기부하였는데 2023년 5월 또다시 10억 원 추가 기부했다. 유휘성 교우가 지난 12년간 기부한 금액은 총 84억 원에 달한다. 이번에 기부한 10억 중 5억은 경영대학에, 5억은 기존의 인성기금에 전달될 예정이다. (모교는 유휘성 교우의 모친과 조모의 성함에 들어있는 ‘仁’자와 기부자 성함에 있는 ‘星’자를 딴 ‘인성(仁星)’이란 명칭으로 인성장학기금 인성연구기금 등으로 명명하여 기리고 있다.)

기부식에서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지난 12년간 모교에 끝없는 사랑을 보내 주신 유휘성 선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 커다란 내리사랑은 후배들에게도 깊은 울림으로 다가갈 것”이라며 “아낌없이 성원해주시는 그 격려를 바탕으로 최고

의 대학으로 성장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고 감사를 표했다.

유휘성 교우는 1938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태어나 7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한국전쟁이 발발하던 1950년에 진천으로 피난을 떠났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배움의 꿈을 놓지 않았던 유교우는 1958년 모교 상학과에 입학하였고 1964년 대학 졸업 후 고려수산에서 첫 직장생활을 시작하였으며 1970년엔 조흥건설을 창립하여 건축업, 토목·자재 생산업, 부동산 임대업 등을 하며 여러 난관을 겪었지만 그의 끈기와 열정으로 고비를 넘겼고 자수성가 사업가로 자리매김했다. 한평생 실천해 온 검소한 생활 습관으로 모은 재산을 2010년부터 정리하면서 모교 발전에 기여하고 싶었던 오랜 결심을 실천에 옮기고 있다.

유휘성 교우는 2021년 12월 대한민국 고등 교육 발전 및 미래 인재 육성에 이바지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민포장을 수훈하기도 했다.

5월 30일자 대외협력처 기사 발췌

Idea Taking



필자 | 이득주

출생 | 1936 천안 출생

학력 | 1961 고려대학교 경영대 졸업(55학번)

연수 | 1973 자유중국 토지정책 과정 (토지개혁 훈련소) 수료
1974 미국 하버드 썸머스쿨(공기업 정책과정) 수료

봉직 | 1961 서울 사세청
1967 재무부(현, 재정경제부)
1978 보험감독원(현, 금융감독원)
1995 귀향(득영농장 경영)
2000 충남 도정 평가 단장
2019 고려대 경영대 55학번 동기회장

New Idea, New Product라는 용어를 들었다. 지금으로부터 70년 전 내가 大學 2년 때 조지 버빙톤 (George Buffington)이라는 교수로부터 광고학 (Advertsing) 강의를 들었다.

당시 이 교수는 강의 도중 몇 번이나 New Idea, New Product라는 말을 하였다. 즉 새로운 Idea, 새로운 Product라는 말을 하면서 이는 새로운 Idea 상품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당시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지금 생각해 보면 New Idea를 가진 사람은 어떤 분야에서 선구자, 개발자의 역할을 하고 성공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할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도 특히 농업 분야에서 선진화와 과학화는 오늘날 한국농촌을 잘 살게 하였음을 부인할 수가 없다. 농촌에서 밭농사를 지을 때 비닐을 사용해서 풀의 생육을 억제하여 인력 낭비와 피로를 경감하도록 하였다. 농업용 트랙터, 이앙기 개발로 오늘날 米穀生産을 쉽게 하고 많이 할 수 있게 한 점은 ‘New Idea, New Product’ 정신이 밑받침이 된 것이 아니겠는가?

먼나라 이웃나라 이야기도 되겠지만 자동차 산업 重機産業을 일으킨 새로운 기계들(포크레인, 트랙터, 이앙기, 지게차) 등을 만들어 이용한 것은 주로 先進國들(歐美, 日本 등)이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도 이를 농업, 건설업 등 모든 분야에서 도입하여 유효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아산만 방조제 건설 마감 工事에서 (故) 정주영 회장(현대

산업 왕회장)의 선박 공법은 세계적인 공법이고 New Idea가 아닌가 다시 생각해 보아도 존경스럽고 자랑스럽다.

New Idea는 일반행정에도 적용된다. 1963년(?) 이전에는 세무행정기관에서 연말에 체납세금 징수를 강화하였음에도 잔여 체납세금이 있게 되면, 이를 독촉결의를 하여 신년으로 이월하고 독촉세를 부과하였다. 그러니 세무관서에서 많은 인원이 연말에 밤새워 특근하는 일이 비일비재 하였다. 稅務行政의 한 被教育者의 Idea로 이 제도를 개선하였다. 체납세금을 납기가 경과하면 자동으로 독촉세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즉 납기 경과한 세금은 자동적으로 10% 독촉세(후일 가산금으로 개칭)를 부과하도록 했다. 따라서 많은 인력들이 특근(야근)하지 않고 해를 넘길 수 있었다. 따라서 세무공무원 행동 경제에 도움이 되고 공평과세 행정에 상당히 보탬이 되도록 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조치의 시행 전에는 세무관서의 행정추진 상황에 따라 독촉세가 붙을 수 있고 붙지 않을 수도 있었다.

이러한 New Idea를 얻어내는 것이 Idea Taking이라 하겠다. Idea Taking은 산업 분야 행정 분야뿐 아니라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필요한 것이라 생각 된다.

Idea Taking이 많이 되면 國利民福 行政發展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 분명하다. 국가기관 지자체, 민간 조직 각계각층이 Idea Taking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숫자의 매력



春崗 황인강
상61·수필가

인류는 숫자를 언제부터 이용했을까. 사람들은 숫자를 셀 때 1.2.3.~의 순서대로 세고 여기에 더하기, 곱하기, 빼기, 나누기 등으로 수를 계산한다. 모든 것이 숫자로 시작해서 숫자로 끝나는 것이 우리들의 생활이다. 만약 우리 생활에서 숫자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숫자의 편리함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무한하다. 순서나 과정이나 결과도 숫자가 있으므로 해서 결론이 난다. 나는 오래전부터 일기를 써왔다. 수영을 시작한 이래 일기장에 수영한 횟수를 꼭 기록했다. 따로 형식이 있어 거기에 숫자를 넣은 것은 아니고, 일기 첫 줄에 ‘자유수영’이라 쓰고 횟수를 쓴다. 처음 이렇게 시작한 것이 그대로 이어져 15년이 넘도록 꾸준히 적어왔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오랫동안 수영을 계속할 수 있었던 동력이 된 것이 아닐까 싶다.

물론 기록이 없다고 해도 계속할 수는 있겠지만, 숫자가 늘어남에 따라 의욕이 더 생긴 건 부인할 수 없는 즐거움이다. 나의 일기장에는 수영 기록이 4,081회라고 기록되어 있다. 모르는 사람들은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겠지만, 적어도 새벽의 수영을 계속해



오게 한 매우 의미 있는 숫자이다. 수영의 재미를 느끼기 시작한 초보 단계에서는 숫자가 백(白) 단위에 불과했다. 그 시절에 매일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면서 ‘수영 기록이 2천, 3천까지 갈 수 있을까’라며 솔직히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미래에 대한 자신이 없었다.

돌이켜보면 단단히 다잡았던 마음이 풀어질 뻔했던 때가 여러 번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일기장 앞머리에 적힌 숫자를 뚫어지게 응시하면서 스스로 흐트러지려는 마음을 추슬러 온 세월이 잘도 이어져갔다. 곧 4천, 5천 단위로 넘어갈 것 같다. 이러한 우여곡절 끝에 달성한 숫자이니 어찌 감격스럽지 않으랴. 운동을 마치고 그날 일기 맨 앞줄에 쓰는 숫자의 기록은 수영 실력이 향상되었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는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지속해온 의지의 결과물이라 값지었다.

매일 일기장을 펼치면서 맨 먼저 눈길이 가는 이 숫자가 나의 현재의 모습이면서,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의 밑그림을 보는 것 같기도 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는 숫자의 증가에 나 스스로도 놀란다. 이것이 바로 숫자의 매력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18층 계단 오르



기'도 그렇다. 처음 계단 오르기를 시작하게 된 것은 걷는량이 지금의 고양시 화정동으로 이사 오기 전의 걷는량에 비해 현저히 줄었기 때문이다. 운동량이 줄어들므로 해서 무언가 허전한 느낌이 들어 계단을 오르기로 한 것은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다.

언제부터인가 한 계단씩 보다는 두 계단씩을 오르는 것이 더 좋을 듯해서 실천하였지만 너무 위험해 2계단씩 오르기는 중단해 버렸다. 한 계단씩 오르기는 너무 단조롭고 운동량도 적었기 때문이라. 그 후 일기장에 '계단 오르기'라 쓰고 그날 한 계단씩 오른 숫자와 누적 횟수를 따로 적어갔다. 매일 숫자가 늘어나면서 시각적으로 느껴지는 뿌듯함과 매력에 빠져 새벽 수영 운동을 계속하게 되었다. 계단 오르기를 시작한지 7년이 되었고 하루도 거른 날이 없다. 다리의 힘은 더욱 단단해지고 폐활량은 더욱 커졌음을 느낀다.

어느 책에서 읽은 기억이 난다. 어느 대학교수가 자기의 나이와 출생년도에 매듭을 두어 정한 그날을 특별한 날로 지정하고 특별 행사를 한다고 했다. 예를 들면 몇 년 단위나 특이한 날을 정해, 의미 있는 이벤트를 만들어 실행한다. 물론 여기에 가족들의 생일날은 당

연히 들어간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나름의 뜻이 있고, 이벤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매일이 색다른 하루가 된다고 자랑하는 것을 읽었다. 우리 인생은 하루하루의 반복되는 삶이다.

이루어 낸 것을 총량으로 표시해 놓으면, 무언가 자기가 걸어온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목표의 의미를 새삼 발견하게 된다. 1년, 10년, 50년이 훌쩍 지나가는 인생 - 할 수 있으면 자기가 실천한 것까지 총량과 누적을 숫자로 표시해보면 어떨까. 창사 50년이 되는 회사에서 그동안 제품별 총생산량과 판매 금액 등 이루어놓은 유형무형의 자산 등은 상상을 초월한다. 그것을 숫자로 보고 감격을 느끼지 않은 종업원은 한 사람도 없었다. 하나의 예시 효과이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면 금상첨화(錦上添花) 아닌가.

내가 매일 기록하고 있는 수영운동이 앞으로 몇 만에서 끝날지 아니면 몇 십만 숫자에서 끝날지 모른다. 늘어나는 숫자의 증가가 나에게 경이로움을 주고,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 속에 삶의 의욕을 갖고 살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이탈리아반도

여행기 7



허창무

상65·시인·수필가
(前) 한국주택저당채권유동화(주)
(現 주택금융공사 전신) 임원 역임



12월 1일(금) - ②,

오후 3시 30분 파티마를 떠나 1시간 30분 정도 달려서 5시경 땅끝마을 까보다로까에 도착했다. 까보다로까는 원래는 내일 일정에 잡혀있는데, 가이드가 운영의 묘를 살려 오늘 오게 되었다. 내일 리스본 시내 관광을 여유 있게 하기 위해서다.

대서양이 일망무제로 보인다. 이미 해는 저서 바다는 짙은 회색빛이다. 저 바다의 유혹에 포르투갈 사람들은 해양탐험과 식민지개척에 열을 올렸을 것이다. 섬 태생의 원형(原型)이 작동하는 것일까? 까마득한 수평선은 한없는 비밀, 한없는 매력으로 나에게 다가온다. 무한정 보고 있어도 싫지 않은 대서양의 수평선, 누군가 목 놓아 울고 싶다고 했던 저 대서양의 수평선. 한반도의 반도 안 되는 나라가 저 아득한 수평선 너머로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고 다녔다니, 여행 기간 내내 고국이란 나에게 무엇이었던가? 역사의 고비마다



까보다로까 등대와 저자

현상에 적응하기 바빠서 원대한 비전을 상실했던 것은 아닐까? 아득한 수평선 너머 머나먼 조국을 향하여 청마(靑馬)의 '깃발'이라도 휘날리고 싶었다. 등대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그곳 해안은 깎아지른듯한 화강암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까보다로까의 '까보다'는 끝을 말하며, '로까'는 돌을 말한다. 그러니까 그곳은 돌의 끝, 즉 땅끝을 의미한다. 이곳 자그만 광장에는 대항해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탑이 서 있는데, 거기에는 '대륙은 이곳에서 끝나고, 바다는 이곳에서 시작된다.'라는 루이스 드 까몽이스 시인의 시구가 새겨져 있다.

지금 땅끝마을 언덕에는 한국에서는 볼 수 없는 노란 꽃을 피우고 있는 초본이 질펀하게 퍼져있다. 가이드는 그 이름을 막사국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쉽사리 볼 수 없는 식물이다. 다육식물인 것은 틀림없으니 아마도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자생하는 칼잎막사국과 유사한 초본인 것 같다. 겨울이 오면 무엇보다 먼저 봄소식의 전령 노릇을 하는 꽃이라 한다.

대서양으로 나가는 뱃길을 떠나며 행복을 찾아 돌아온다던 남편을 망망대해의 바닷가에서 기다리는 여인이 있었다. 일곱 겹의 치마를 입고 기다리는 여인은 하루 한 겹씩 치마를 벗으며 애모의 비가를 불렀다. 그 노래가 '파두'라는 포르투갈의 국민가요다. 땅끝마을을 관광안내소에서인지 그 애절한 '파두'가 흘러나왔다. 그 비가를 들으며 땅끝마을을 떠나 리스본으로 향했다.

40분 정도 지나 리스본 시내에 진입했다. 리스본의 광역도시인구는 약 300만 명이고, 리스본시의 인구는 약 70만 명이다. 이미 시내에 밤이었다. 서유럽 최장의 다리라는 금문교 너머 리스본의 휘황찬란한 야경을 구경했다. 이 다리에서 '카네이션 혁명'이 결정적 전기를 맞이했다는 것은 앞서 말했다. 역설적이게도 이 다리는 독재자 살라자르가 만들었다. 2,278m 길이의 금문교가 1966년 완공된 후로 살라자르 다리라고 부르다가 1974년 카네이션 혁명 이후 4.25 다리로 개명했다. 샌프란시스코의 금문교를 건설한 회사가 그와 똑같은 모양으로 건설하여 리스본 금문교라고도 부른다. 다리 밑으로는 테주 강이 강을 스페인에서는 타호강이라고 부른다.)이 유유히 흐른다. 바다 같다. 지난날의 호화로운 역사는 이 밤의 별빛처럼 반짝이며 대서양을 비춘다.

버스 안에서 가벼운 웃음거리가 생겼다. 어제부터 가이드가 수도 없이 포르투갈의 식민 역사를 이야기해왔는데 리스본에 도착하여 느닷없이 "가이드님, 브라질이 어느 나라에서 독립했어?"하는 질문이 나왔다. 그 순간 버스 안에서는 잠시 침묵에 이어 실소가 터지고, 한숨 섞인 탄식도 나왔다. 가이드는 그녀가 쑥스럽지 않게 "포르투갈이요."하고 가볍게 응대했다.



까보다로까의 기념비



제로니무스 수도원

수도원과 벨렝 탑, 그리고 20세기에 만들어진 '발견의 기념물'등이다. 수도원과 탑은 제국 시대 해상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건축되었고, 이는 16세기 포르투갈 해상제국의 영광을 상징한다. 제로니무스 수도원과 벨렝 탑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다.

석회암으로 지어진 제로니무스 수도원(Mosteiro dos Jeronimos)은 한 변의 길이가 약 300m에 이르며, 웅장하고 화려한 노르만 고딕 양식을 띠고 있는데, 포르투갈에서는 이런 건축양식을 '마누엘리노(O Estilo manuelino)'양식이라고 부른다. 이 양식은 15세기 말에서 16세기 초 포르투갈을 다스린 마누엘 1세(1469-1521)의 이름에서 유래한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원래 봉쇄수도원이었다. 봉쇄수도원이란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죽을 때까지 일생을 마쳐야 하는 수도원이다. 대항해시대의 선구자 엔리케 항해왕자가 예배당을 세웠고, 후에 마누엘 1세가 제로니무스 파 수도사들을 위해 수도원으로 건립하였다. 바스코 다 가마가 첫 항해를 시작하기 전 이 수도원에서 일주일 금식기도 후 출항했다고 한다. 이 수도원과 벨렝 탑은 대지진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아자수처럼 생긴 기둥과 천장은 마누엘 양식의 걸작으로 꼽힌다. 지금은 수도원이 아니고, 남쪽은 성당으로, 북쪽은 박물관과 미술관으로 사용되고 있다.

벨렝 탑(Torre de Belém)은 마누엘 1세에 의해 테주(Tejo)강 입구에 출입하는 선박들을 통제하고 도시를 방어하기 위하여 지어진 요새 겸 등대였고, 이를테면 일종의 검문소였다. 보루(요새) 부분과 4층으로 된 탑 부분으로 구분되며, 마누엘리노양식의 대표적 건물이다. 벨렝 탑 부근에는 1922년 포르투갈에서 최초로 대서양을 횡단한 수상비행기의 모형탑이 있다. 이곳에서 브라질의 리우 데 자네이루까지 3,000km를 날아갔다고 한다.

발견의 기념비(Padrazo dos Descobrimentos)는 대항해시대의 항해 왕자 엔리케(또는 엔히크) 사망 500주년을 기념하여 세운 기념비다. 범선을 본떠서 만든 약 52m 높이의 기념비는 뱃머리 앞에 엔리케 왕자가 범선을 들고 서 있고, 그 뒤를 이어 인도항로를 개척한 바스코 다 가마, 지구를 일주 항해한 마젤란, 대항해시대의 통치자였던 마누엘 1세 등의 위인들과 천문학자, 지질학자 등 모두 30명의 인물이 조각되어있다. 이 비는 1939~40년 살

12월 2일(토), 이번 여행의 마지막 날이다. 아침 6시 기상, 7시 조식, 8시 호텔을 출발했다. 맨 먼저 리스본의 벨렝지구를 찾았다. 이곳은 16세기 해상원정대의 대부분이 출항했던 곳이다. 상징적인 건축물은 16세기에 건축된 제로니무스



발견의 기념비



발견의 기념비 측면

라자르 독재정권에 의하여 세워졌다. 이 기념비의 상부 테라스에서는 광장에 설치된 대 나침반을 볼 수 있다.

알파마 지구의 가장 높은 언덕에 자리 잡은 상 조르제 성(Castelo de São Jorge)은 고대 로마인들이 터전을 마련했고, 무슬림 시대에 지금의 모습으로 정착되었다. 리스본에서 가장 오래된 성으로 과거에는 군사 요새의 역할을 하였고, 한때는 감옥으로 사용되기도 했지만, 현재는 공원으로 꾸며져 있다. 상 조르제 성은 지나치면서 보았으나, 리스본 인근 신트라 시에 있는 페나 궁전(Palacio da Pena)은 가보지 못했다. 1847년 완공한 낭만주의 양식의 궁전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있는데 아쉬움이 컸다.

제로니무스 수도원을 지나 가까운 정류장에서 선택 관광으로 툽툽(Tuk Tuk)투어를 했다. 뭔가 했더니, 한국에는 없으나 필리핀에서 타본 적이 있는 지프니와 같다고 할까, 또는 트라이시클과 같다고 할까? 앞뒤가 터지고 양옆으로 두 사람씩 네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차량이다. 그것을 타고 리스본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깔라 까데 도 몬테'언덕에 올랐다. 리스본항과 어제저녁 지나왔던 금문교가 장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다. 리스본은 말하자면 7개의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한다. 고풍스러운 수도원이며, 부호들의 거주지며, 그런가 하면 서민들의 거주지도 보인다. 가까운 곳에 공원처럼 하늘을 찌르는 측백나무(사이프러스)가 무성하기에 저곳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공동묘지라고 한다. 사이프러스는 예수의 부활을 상징하므로 이베리아반도의 공동묘지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다.

내려오는 길은 옛 중세의 골목길 같은 좁은 길을 타고 내려왔다. 서민들의 주거지였다. 아무래도 교통이 불편한 고개 동네는 서민들의 차지다. 벽에 칠이 벗겨졌는데도 그대로 두어 퇴락의 빛이 완연했다. 도로는 작은 사각형의 포장 도로 덮여있다. 인부들이 포장 돌을 뜯어내고 수도공사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수도공사를 하려면 엄청난 시간과 인력을 요한다고 한다.

언덕을 내려와서 리스본의 중심지에 있는 로시우 광장으로 갔다. 호시우 광장이라고도 부른다. 정식이름은 '동 페드루 광장'이다. 광장 가운데는 동 페드루 4세의 동상이 높다랗게 솟아있다. 동 페드루는 독립 브라질의 첫 번째 왕이었다. 주변에는 카페와 레스토랑이 즐비하다. 그 가운데쯤에 있는 레스토랑에 들어가 포르투갈식 중식을 했다. 샐러드가 나오고, 다음으로 고기류가 나오고, 후식으로 과일이 나오는 간편한 식사다.

가이드 견습생 김 씨와 잠깐 정담을 나누었다. 큰 키에 날씬한 몸매, 선한 눈매와 가름한 얼굴, 맑은 미소를 짓는 상냥한 품성이 누구에게나 호감을 주는 여성이다. 이번 여행에서 가이드를 도와 여행객들의 각종 편의를 돌보았다. 김 씨의 남편은 스페인 남성이다. 남편이 서울에 유학할 때 사귀어 스페인으로 시집왔다. 가이드의 말에 의하면 그녀의 남편이 현재 실직 중이라고 한다. 김 씨 본인은 나타내려고 하지 않지만, 어딘지 수심이 깃든 얼굴은 동포로서 안쓰러운 생각이 든다. 더구나 스페인은 철저한 남성 우위의 사회다. 스페인 남성들, 특히 실직자들은 여자를 직업전선으로 내몰고, 그들은 집안에서 빈둥거리기만 하다가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들어오는 아내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폭력을 휘두르기 일쑤라고 한다. 스페인 남성들의 폭력성은 옛 식민지 시대부터 전래했다고 한다.

가이드와 견습생 김 씨는 우리와 함께 리스본공항까지 왔다. 공항까지 오는 동안 버스에서 스페인 가수가 열정적으로 부르는 베사메우초를 들었다. 스페인은 낭만의 나라, 정열의 나라, 애모의 나라다. 어 느새 우리도 그 노래를 따라 불렀다. 리스본 공항에서 우리는 이스탄불공항으로, 그들은 마드리드로 갔다. 우리는 가이드 및 견습생 김씨와 석별의 정을 나누면서 오래도록 손을 흔들었다. 가이드는 물론 견습생 김씨도 이번 여행의 유종의 미를 거두게 해주었다. 나는



벨렝탑

포르투갈 최초 대서양 횡단 수상비행기



그들에게 배운 포르투갈어로 작별인사를 했다. 남자인 가이드 아저씨에게는 ‘오브리가두’, 여자인 견습생 김씨에게는 ‘오브리가다’라고. 두 가지 다 ‘고마워요’라든가 ‘감사합니다.’라는 말이다.

비행기 탑승 수속을 마치고 개찰시간을 기다리는데, 인솔자가 다가왔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 덕분에 방 동료 C씨와 원만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만나 뵙게 되면 제가 정말 잘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진심으로 고마워했다.

조금 있으니까 이번에는 C씨가 가까이 왔다. 조금 전 인솔자가 왔다 갔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당신 이번 여행 어땠어?” 내가 먼저 말을 건넸다.

“형님 덕에 그럭저럭 때웠습니다.”

“그럭저럭 때우면 되나? 즐겼어야지.”

“그래도 내가 기합 주는 바람에 인솔자 녀석이 우리에게 서비스를 더 잘해줬잖아요.”

“그랬을지도 모르지. 그런데 귀국해서 좀생이 짓 하지는 않겠지?”

“제가 그렇게 비열해 보입니까? 젊은 놈 앞길 망칠 짓을 왜 합니까? 그냥 혼 좀 내주려고 그랬던 거죠.”

“그래, 그러면 됐어.” 나는 그렇게 말하며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솔뚜껑만 한 손이 내 손을 덥석 움켜잡았다. 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2017년 12월 19일 끝

사 진 출 처



- 까보다로까 등대, 까보다로까의 기념비, 깔라 까데 도 몬테 언덕에서의 리스본 조망, 벨렝탑, 발견의 기념비, 땅끝마을의 대서양, 제로니무스 수도원, 포르투갈 최초 대서양 횡단 수상비행기 기념탑
- 발견의 기념비 측면 (좌로부터 엔리케, 아폰소 5세, 바스코 다 가마, 여섯번째가 마젤란)

허창무 교우 제공

엔리케 서거 500주년
기념사업팀 홈페이지

깔라 까데 도 몬테 언덕에서 리스본 조망



노래, 한국인의 일상

이정순 · 상61

취평뉴스넷 편집위원 겸 수필가&칼럼니스트



음악은 세계 공통의 언어입니다. 음악을 좋아하지 않는 나라나 민족은 특별히 없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사라져가는 음악의 채집가라고 소개하는 신경아라는 작가가 쓴 책 <세상의 끝에서 만난 음악>만 봐도 그렇습니다. 한국사람들은 참 노래를 잘합니다.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그 말은 한국사람 중에도 음치나 박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노래를 아주 잘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계량화나 수치화된 통계가 없어서 확실히 그렇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그것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인만큼 노래에 진심인 민족은 찾아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한국인에게는 춤과 노래가 생활이었습니다. 정말로 춤과 노래에 진심이었습니다. 우리 역사는 열국시대, 만주와 한반도에 고조선, 부여, 고구려, 백제, 삼한 등이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미 한민족 사람들은 춤과 노래에 아주 열정적인 민족이라고 중국의 역사서 여러 곳에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위지(魏志) 30권 동이(東夷)선비(鮮卑)조환(鳥丸)편에는 ‘고구려는 그 백성들은 노래와 춤을 즐기니 나라 안의 읍락(邑落)에서는 밤에 백성들이 무리를 지어 서로를 쫓고 노래를 부르며 즐겼다.(其民喜歌舞, 國中洛邑, 暮夜男女群聚, 相聚歌戲)’라고. 동예 편에는 ‘항상 시월에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데 밤낮없이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니 이

름하여 ‘무천(舞天)’이라 하였다(常用十月節祭天, 晝夜飲酒歌舞, 名之爲舞天)’고 하며, 마한은 ‘항상 오월 씨 뿌릴 때가 되면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무리지어 노래하고 춤을 춘다, 밤낮없이 설 줄 모르고 술을 마신다. 그 춤은 수십 사람이 함께 일어나 따라가면서 땅을 밟는데 손과 발이 서로 응한다.(常以五月下種訖, 祭鬼神, 聚歌舞, 飲酒晝夜無休, 其舞, 數十人俱起相隨, 踏地低, 手足相應)’고 쓰여 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에도 신라의 향가, 고려가요 또 조선시대의 판소리와 창(唱)에 이르기까지 한민족은 최소한 2천 년 이상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생활화했던 민족입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불과 한 세대 전 지금의 50~60대들이 20~30대였던 시절만 해도 또래 젊은이들끼리의 모임에서는 거의 반드시라고 해도 될 만큼 노래를 부르는 순서가 많았습니다. 캠퍼스에서도 둘러앉아 기타 반주로 노래를 불렀고 학교 앞의 주점에서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씩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다 십중팔구는 ‘떼창’으로 이어졌습니다. MT에서도 그랬고 회사나 학교의 신입생 환영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노래 부르기를 지명 당했을 때 빨리 노래를 하지 않으면 ‘안 나오면 쳐들어간다 쿵짜작쿵짝’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빨리 노래 부르기를 재촉했습니다. 그래도 노래를 하지 않으면 ‘노래를 못하면 장가도 못가요’라는 원래의 가사를 다소 웃기



게 고쳐 만든 이상한 노래를 부르며까지 노래 부르기를 강요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노래 부르기에 진심이었나 하는 것은 한국의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TV에는 밤낮 요일 없이 노래하는 프로그램이 방송됩니다. 방송국은 시청률에 목숨 거는 비즈니스입니다. 시청률이 제대로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아예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습니다. 또 설령 방송을 시작했다 해도 시청률이 낮으면 광고도 붙지 않고 광고가 없으면 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폐지됩니다. 방송시간, 소위 편성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시간을 배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은 비교적 좋은 시간대에 배정된 장수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인 군구를 순회하며 노래 경연을 하는 <전국노래자랑>은 1980년 11월 9일부터 현재까지 무려 42년 이상 방송되고 있습니다. 흘러간 옛 노래를 주로 들려주는 <가요무대>라는 프로그램도 1985년부터 시작해서 40년 가까이 방송되고 있습니다. 대중가요와 클래식을 넘나들며 다양한 노래를 들려주는 <열린 음악회>라는 프로그램도 1993년부터 30년째 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탄탄한 고정 시청자 층이 있다는 방증입니다.

그 밖에도 요즘의 시청률 순위표를 보면 <불후의 명곡>, <복면가왕> 등 노래하는 프로그램들이 꾸준히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방송국들은 끊임없이 노래 잘하는 사람을 뽑는 경연대회 소위 오디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웬만한 오디션 프로그램은 기본시청률과 화제성을 보장해 주기 때문입니다. 시청자들도 자신들이 심사위원인 것처럼 생각하며 경연 프로그램에 몰입합니다. 주부를 대상으로 했던 <주부가요열창>,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학가요제>와 <강변가

요제>,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했던 <슈퍼스타 K>, <K팝스타> 요즘의 <미스터트롯>, 연예인 대상의 <도전1000곡> 등 전설적인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방송국의 노래경연 프로그램과 관련해 또 하나 놀라운 사실은 그러한 경연 프로그램이 끝없이 반복되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끊임없이 계속 나온다는 것입니다. <히든싱어>, <복면가왕>, <너의 목소리가 보여> 등등 해외에 판권까지 수출한 노래 관련 프로그램들을 보면 원곡자와 똑같이 부르는 사람들, 혹은 원곡자보다 더 잘 부르는 사람들이 마르지 않는 샘처럼 계속 생겨납니다.

한국인들의 노래사랑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코로나가 발병하기 직전까지만 해도 가히 국민오락이라고 불렸던 노래방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노래방 열풍은 삼시간에 대한민국 전체를 점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과 직장인을 포함해 대한민국의 거의 모든 회식과 여흥의 끝 순서는 노래방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회식의 공식적인 마무리 장소였습니다. 노래방은 한국 국민들 가운데 노래방 애창곡 한두 곡쯤 없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실제로 한국인들은 노래를 잘합니다. 다인종이 근무하는 회사에 다녀본 사람들은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여러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노래방에 갔을 때 가장 많은 박수를 받고 결국 마이크를 독점하다시피 하는 사람들은 한국인인 경우가 많다고 말합니다. 한국인들이 꼭 한국 노래만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외국인 회사에 다니는 한국인들 가운데는 팝송이나 샹송, 엔카 등 외국 노래도 마치 그 나라 사람들처럼 아주 유창하게 불러서 다른 나라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일상의 너와 내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

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었습니다. 4월 26일 미국 국민 방문 만찬 때 불렀던 ‘아메리칸 파이’가 연일 화제입니다. 미국의 한 의원은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는 미국의 국가(國歌)나 다름없는 노래”라며 “이런 노래를 외국 정상이 불러 주리라곤 상상하지 못했다.”고 감탄해 마지않았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정치권에 입문하면서 페이스북 등 SNS 계정을 열었는데 그때 “18번 곡은 돈 맥클린의 ‘아메리칸 파이’와 ‘빈센트’ 그리고 송창식의 ‘우리는’”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니 노래 좋아하는 대통령이 자신의 애창곡을 적절한 기회에 뽑낸 것인데, 소위 아귀가 맞아떨어지면서 화제가 더해진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가 기억날지 모르겠다.”던 윤 대통령은 “아주 오래 전에, 난 여전히 기억할 수 있어(A long long time ago, I can still remember)”라는 가사로 노래를 시작했고, 한 소절이 아닌 7소절이나 이어가며 “The Day the Music Died”라는 대목이 나올 때까지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메리칸 파이’는 쿠바혁명, 케네디 당선과 암살, 베트남전쟁, 시민권운동, 마틴 루터킹과 말콤 엑스의 암살 등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던 50~60년대를 살았던 동시대 미국 청년들을 위로했고 그래서 ‘아이콘’이 된 노래라지요. 우리나라의 ‘아리랑’쯤 된다고 보면 음악평론가의 말이 새롭게 들립니다. 따져보니 우리에게서 6.25 전쟁이 끝난 후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맺고 한미동맹의 초석을 다져가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한미 두 정상이 내놓은 ‘워싱턴 선언’에 대해 여당에서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부르는 것도 묘하게 오버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의 후원자들 앞에서 이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아메리칸 파이’를 부른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오래된 신문 기사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매일경제 2014년 6월 13일자 기사입니다. ‘오페라 한국 성

악가들 이유 있는 위풍당당’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한국인 성악가들이 세계 오페라 무대와 세계적인 콩쿠르를 휩쓸고 있다면서 한국인들이 특별히 노래를 잘하는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분석한 기사입니다.

한국인들은 왜 노래를 잘하는가? 그 취재 기자에게 답한 사람들 중에는 한국인들은 성량이 남다르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광대뼈가 넓어서 얼굴이 작고 가름한 서양 사람보다 공명에 훨씬 더 유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한국인들이 발성이 더 정확하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국어에는 열린 모음이 많아서 세계 언어를 쉽게 발음하고 그것이 가사 전달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기후 등 자연조건을 거론한 사람도 있습니다. 청중을 감동시키는 데는 감정전달이 특히 중요한데 사계절이 뚜렷한 사람들이 열대나 한대에 치우친 나라 사람들보다 감정표현에 뛰어나다고 했습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지중해와 접한 반도 국가에서 좋은 테너가 많이 배출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며 한국도 스페인, 이탈리아 그런 나라와 자연조건이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세계 성악가들의 꿈의 무대라 불리는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하우스에서 한국인 최초로 주역을 맡았던 소프라노 홍혜경 씨는 다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노래 잘하는 감정적인 성격과 얼굴, 체격, 목소리 상자를 타고 태어난 민족이다. 소리와 연기는 모두 한국인의 피 속에 녹아있는 것이다.”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처럼 한국인들이 노래를 잘한다는 것이 그냥 우리끼리 한민족끼리만 즐기는 것이고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것이 한류라는 물결이 되기 시작했고 마침내 대한민국 국격을 상승시키는데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끝.



55 회장 이득주

동기 여러분들께 드리는 편지 (23.5.31 기록) ●●●

화란춘성(花爛春城) 만화방창(萬化方暢) 新祿의 季節 5월입니다. 其間 會員님들 玉休建安하시고 家內 無事泰平하십니까?

1. 訃音

- ① 高再煥님 2021.11.20. 別世하셨다는 소식을 최근에 접하였음.
·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
- ② 趙君廈님 2023.4.17. 別世하였음.
· 故人의 명복을 빕니다.
· 同期會員 7名の 護喪所에 다녀왔습니다.

2. 通信文 發送

- ① 癸卯年 正月初 : 新年 年賀狀
- ② 2023.3.3. : 通信文 發送

3. 내빈영접

2023.3.30. 모교 신입총장 김동원 교수님, 대외협력처장 신호정 교수님이 코리아나 박물관(Space C)에 예방하여 화장품박물관, 미술관, 조각전시장을 관람하였음. · 소생이 유 회장과 함께 동행, 영접했음.

다가오는 하절기 건강히 지내시길 기원합니다.

※ 會員여러분, 신상변동(주소변경, 건강상태, 전화번호 변경)사항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불연이면 완전 미궁에 빠집니다.



코리아나 박물관에서

61 회장 이경순 / 총무 이채영

이명박 전 대통령 초청 오찬 회동 ●●●

4월 3일 12시 서초동 일식집 '대서양'에서 동기회 정시균 회장과 재경 전임 회장들이 동기회원인 이명박 전 대통령을 초청하여 오랜 기간 힘든 시간을 보낸 회원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자는 정시균 현 동기회장과 전 동기회장 김승유, 김우찬, 엄종일, 이병우, 정광수 등이 참석하였고, 그 외에 이채영, 김윤장, 김순구, 장경작, 성영일 등 총 11명이 참석하여 2시간여 동안 근황과 건강 등에 대한 환담의 시간을 가졌다.



서초동 회동

2023년 상반기 동기회 전체모임 ●●●

5월 19일 금요일 12시 지하철 7호선 논현역 앞 '취영루'에서 정시균 동기회장 초청 오찬을 50여 회원이 함께하며 3년 만에 만나는 벗들과 서로의 근황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코로나 사태로



이경순 회장



상반기 전체모임

인하여 총회를 열지 못해 임기가 만료된 정시균 동기회장의 임기를 연장해온 점을 고려하여, 오늘 모임에서 후임 회장을 선출하기로 결의하고 재학 중 상학 회장을 역임한 이경순 회원을 만장일치로 후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후임 회장으로 선출된 이경순 회장은 집행부의 현 임원들을 연임시키고,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각종 만남을 갖지 못해 동기들 간에 소원해지고 80대에 접어든 나이를 감안, 1년에 2회 전체 모임을 갖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분기마다 만나는 방법도 계획해 보고, 소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석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신임 회장 초청 소모임 회장 및 임원 합동 간담회 ●●●

신임 이경순 회장은 6월 16일 12시 지하철 7호선 노현역 앞 '취영루'로 소모임 회장들인 도암회 김 실, 이월회 성영일, 초암회 전춘옥, 삼목회 박인우, 광암회 이채영, 재무팀장 김윤장, 감사 엄무성, 최민자를 초청하여 소모임을 활발하게 운영해온 데 대하여 감사를 표하고, 오는 12월 개최할 총회가 원만히 개최되고, 앞으로 동기회가 활성화 되도록 협조를 구할 예정이다.

초암회(서초모임) ●●●

서초구 지역 거주 회원들로 지하철 9호선 반포역 인근 '산들해'에서 격월로 매 홀수달에 만나고 있으며, 2023년 초암회 전춘옥 회장을 중심으로 15명이 오찬을 함께하며 친목을 다지고 있다. 금년에는 1월과 3월에 모임을 가졌다.

삼목회(걷기모임) ●●●

삼목회 등산모임이 연령을 감안하여 삼목회 걷기 모임으로 바뀌서 매월 셋째 목요일 만나 서울 근교 둘레길을 회원 10~15명이 걷고 있다. 특히 4월 22일에는 경영대 교우회가 주최하는 '청와대둘레길 걷기행사'에 이경순, 이근태, 이근태, 이채영, 박인우, 박진자, 박수죽, 손윤기, 최민자 동참하여, 오전 10시 3호선 경복궁역에서 만나 청와대를 2시간 동안 걸으며, 깊어가는 봄을 마음껏 즐긴후, 코리아나 호텔 7층에서 갈비탕 정식과 반주로 품위 있게 공복을 만족시키고 여흥을 즐겼다. 근처 커피숍으로 내려와 차를 마시며 헤어짐의 아쉬움을 달랜 후, 박인우, 박수죽, 이채영은 삼청동 무산선원을 찾아 속초 신흥사 조실이었고 만해마을 촌장을 역임한 무산 큰스님의 작품을 돌아보고 귀가하였다. 6월 15일에는 11시에 삼목회의 고향인 청계산 옛골을 찾아 어둔골의 초여름 계곡에 흠뻑 빠져본 후, 토성 오리집에서 기력을 보충하기로 하였다.



청와대 트레킹 행사 참가

도암회(여의도 모임) ●●●

여의도에서 근무하던 동기들이 김 실 회장을 중심으로 매월 셋째 주 금요일 13시 여의도 리버티 타워 2층에서 모이고 있으며 3월 17일, 4월 7일에도 만남을 가졌고 당일 오찬은 회원들이 돌아가며 부담하고 있다.

청춘대학(실버학교) ●●●

3월 16일 오전 11시 30분 옥수역 옥수해물찜, 4월 15일 오후 5시 옥수역 옥수해물찜, 6월 3일 오후 5시 30분 청담동 강강술래 등에서 암 투병 중인 엄무성 회원을 제외한 회원들이 만나 맛난 음식을 즐기고 인근 카페에서 수다를 떨며 대화의 목마름을 해소한 후 귀가하였다. 다음 모임은 6월 30일 오전 12시 30분 압구정역 2번 출구에서 만나기로 하였다.



청춘대학



이월회(강남지역 모임) ●●●

작수달 둘째 월요일 낮에 성영일 회장을 중심으로 20여 명의 회원이 양재역 정육식당에서 만나고 있으며 4월 10일 김윤장, 김순구, 김근도, 김우찬, 김지균, 박인우, 왕규철, 이병우, 이복성, 이춘원, 정시균, 채갑병, 성영일 등 15명의 회원들이 참석하였고, 오찬은 김우찬, 김윤장, 김지균 회원이 비용을 부담하였다. 다음 모임은 6월 12일 오후 12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갖기로 하였다.

62 회장 권동욱 / 총무 한상욱

요산회 모임 ●●●

62학번 동기회(회장=권동욱)가 2023년 4월 6일 동기회 등 산모임인 요산회가 시산제를 서울대공원 둘레길 청계산 기슭에서 시행하였고 요산회 회원과 62동기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였으며, 5월 4일 요산회 회원은 10시 30분에 청계산 옛골에 모여 산행하고 일반회원은 부인과 같이(총 33명) 12시 30분에 청계산장에 모여서 한우로 점심을 즐기면서 고대를 입학한 지 60여 년이 지나 모두 산수(팔순)가 지난 동기들의 지난 세월의 희노애락의 애환을 나누면서 하루를 즐기고 다음에 만남을 기약하였다.



요산회

64 회장 안덕수 / 사무총장 조재복 / 재무총장 정원교

백수회 분당천 벚꽃길 따라 (백수회장 : 지동직, 걷기대장 이경희) ●●●

사월 초순 벚꽃이 만발한 분당천 독길은 문자 그대로 환상적인 꽃놀이 코스다. 흐드러지게 핀 담홍색 벚꽃은 탄천의 원류인 분당천을 온통 물들여 매워 오고 노랑 개나리, 붉은 홍매화와 함께 풀밭에서 솟아오르는 귀여운 흰 풀꽃들과 맑은 물속에 짙기하는 잉어와 수많은 피라미 떼와 붕어들, 신언서판 유성준 시인이 수시로 걷는다는 이 길을 추천하여 안내하면서 기온이 26°C까지 오르는 중에 얼마나 많은 꿈을 잡았었나! “연분홍 꽃잎이 봄 나절에 흩날리더라. 오늘도 백수회 벚들은 벚꽃 아래서 함께 웃었다.”모두의 카메라가 불을 뿜었고, 요르단의 페트라를 다녀온 짙새 박채길은 배를 내밀고 셔터를 누르기 여념이 없었다. 영상편집 명장 박명익은 편집 공리에 몰두하는 듯했고, 백과사전 유명식 박사는 삶을 논하고, 동식물 도감 이석훈은 성서의 ‘J’목음을 설명했다. 원조 백수회장 지동직은 토론의 결론을 유도하고, 이경희 대장은 여전히 쓰레기 봉지를 들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하면서 일행을 통제하기 바빴다. 광수 생각에 언제나 활짝 웃고 다가오는 김광수, 분당을 못잊어 서울에서 회귀한 신준철 또 얼마나 좋은 날들을 보내고 있는가? 그래, 세월야. 매일이 아니라도 수시로 오늘날 같아라.



백수회 분당천에서

청와대 트레킹 참가 ●●●

- 일시 : 2023년 4월 22일(토)
- 참석자 : 강동식, 고병선, 김광수, 김덕한, 김동훈,
김현희, 박명익, 박채길, 박태웅, 송병열,
신준철, 안덕수, 유성준, 이강훈, 이경희,
이석훈, 이용규, 지동직, 최양섭



청와대 트레킹 참가

몇 년 만인가? 코로나 이전 걷기 대회는 참가인원 제한이 없었으나 이번 모임에 총 200명 한정이라 64학번

20명으로 제한해서 보통 때 30명은 웃돌았던 참가 동기들에게는 서운한 조치였지만 수용해야만 했다. 날씨도 청명해서 9시 춘추관 앞 출발에 맞추기 위해 서둘러 모인 동기들은 단체사진과 학번 사진을 찍고 청와대 담을 끼고 돌아 소나무가 터널처럼 천개를 만들어 준 둘레길 따라 올라가서 쉬엄쉬엄 가는데 57학번 왕선배님 한 분을 뵈고 앞선 62, 63학번 선배님들도 몇 분만 참가했을 뿐 전체 학번 중 점심과 여휴시간 시 두 테이블을 차지한 학번은 64학번이 유일했다. 트레킹 후 코리아나 호텔에서 식사 시 행운권 추첨은 테이블 당첨이 세 번으로, 빈자리 끼어 앉은 87학번 후배들도 한번 당첨이 되어 푸짐한 상품을 받았고 개인 경품 추첨 시 최고의 경품인 골프백 당첨은 이석훈이,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도 이용규, 지동직 두 동기들이 선정되어 전날 밤 경사스러운 꿈을 꾸었던 것이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 싶다. 교우회의 완벽한 준비와 행사 진행은 금년에도 참가한 모두에게 기쁨을 준 것 같고 모든 참석자에게도 기념품을 선물해서 보따리 들고 나서는 경영대 교우들은 호텔을 나서며 얼굴에 웃음이 가득 차서 헤어졌다.

백수회 한강변 걷기 (백수회장 : 지동직, 걷기대장 이경희) ●●●

- 일시 : 2023년 4월 26일(수)
- 참석자 : 김광수, 김현희, 박채길, 신준철, 유명식,
유성준, 이경희, 이석훈, 지동직



백수회 한강변에서

동작역에서 출발한 한강 변은 바람이 불어 쌀쌀했지만 걷기에는 안성맞춤의 날씨. 유채꽃을 심어놓은 밭은 열무처럼 자라서 푸르게 강변에 덮었고, 하얀 꽃 이팝나무 꽃, 탐스런 수국에 질세라 작은 풀꽃이 고개를 쳐들고, 물새는 날아오르고 강바람에 쓰러질 듯 쓸려 자빠지는

포플러 나무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맑은 물이 넘실대면서 도도히 흐르는 한강은 서울의 보물. 잘 다듬어진 강변을 걸을 때면 우리는 잘 태어나서 단군 이래 최고의 국력이 된 선진국에 살고 있다는 뿌듯한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 곧 유채꽃 만발한 화원을 그려볼 때 지상낙원이 어디인가? 새참 때 트레킹 후 경품 받은 기념으로 지동직 회장이 따끈하게 끓인 국물과 함께 노지에서 후루루 먹는 라면을 대접. 그 맛은 모처럼 우리 가슴을 뜨겁게 했고 점심때 골프백 포상 기념으로 논현역 갈비집 '松花流水'에서 철철 넘쳐흐르는 갈빗대 수가 무릇 기하이며 뜨끈한 국물에 온몸이 풀어지는 식복을 준 이석훈의 경품 떡과 덧붙여서 이용규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봉어빵에 커피까지 대접하는 잔치 벌였네~ 매주 수, 토요일에는 백 세까지 즐겁게 수요일에 만나자고 백수회를 만들어 토요일까지 연장한 것은 강북 동기들에게 기회를 준 것. 분당은 천당 밀이 아니라 동급이라는 소문으로 대부분이 분당에 살고 있는 회원들에게 백수는 건강하게 지내는 것이 기본이고 백오십까지라도 살고 지고, 백수회여~ 만세. 만세. 만만세~



봄 테마 등산 : 법주사 세조길 트레킹 (등산회장 : 이용규, 등산대장 고병선) ●●●

● 일시 : 2023년 5월 20일(토)

봄날은 가고 있는데 더위가 무엇이 그리 바쁜지 먼저 오고 싶었나 보다. 새벽같이 일어나 버스 타러 가기 위해 모인 인원은 31명, 코로나 3년이 지난 원죽길은 이용규 회장의 취임 작품이며 언제나 고병선 만년 등산대장과 회장을 맡으면 대형 행사를 시행하여 백두산 등정이나 골프회 해남도 원정도 이분들 작품이다. 고 대장은 여전히 일행



법주사 세조길 트레킹

의 맨 뒤에서 인원 체크하고 쓰레기 수거했고, 물 흐르는 냇가와 짙은 녹음길 사이 저수지 옆에 늘어진 나뭇가지 사이로 번쩍이는 수면 위 햇살은 부드러웠으며 모처럼 만나서 담소하는 초로의 동기들의 정겨운 목소리는 무더위를 막아주는 숲길을 가득 채우며 수풀 속으로 녹아들었다. 세조가 피부병 치료차 걸었다는 길의 유래는 북한암에 거주하고 있던 신미대사를 수 차례 찾아가 훈민정음 보급에 대하여 논의한 것이 먼저고, 평소 흠모하던 고려 태조 왕건이 걸던 길이 진흙인 말티재를, 얇은 돌을 놓아 정비한 뒤 그 길을 그대로 따라 걸어서 세조와 연관된 눈썹 바위 등의 여러 지명이 있는데, 정이품 벼슬까지 준 소나무는 인공 수정해서 현재 장자목이 올림픽 공원에 있다고 한다.

우리 모임에서 언제나 꽃이 되어 분위기를 살려 주시는 다섯 쌍, 동기회 사무총장, 등산회장 역임했던 권영기의 영원한 교장 선생님 김귀분, 등산회장과 골프회장 기록물 편집 달인 김동훈의 백두산 등정으로 암까지 정복한 이하자, 등산회장, 백수회 등산대장 이경희의 잉꼬로 소문난 윤란순, 오후고 수재, 남미 원정 때나 이번 테마 길도 불편한 몸을 이끌고 완주한 이태경의 노래왕 신순덕, 삼성맨 최종한의 젊은 짝 허연숙, 왕회장 강동식, 등산회장 통영상고 수재로 병마를 이겨낸 강웅민, 인사업무 귀재 팔순 잔치를 끝낸 고충효, 골프회장이며 싱글풀퍼 김덕명, 서천의 인물이며 파월 유공자 김덕환, 마지막 광복군 김준엽 총장의 조카 김상규, 육사 재학 만형 김헌희, 휘문고 수재이자 영상 제작의 명인 박명익, 파월 장병이자 여군훈련소 짝새 박재길, 동래 미남이고 신동충 박태웅, 현대맨, 색소폰 달인 송병열, 수목원 찾아 부부 동반 전국 섭렵한 사진사 신준철, 강학의 인물로 전 군수이며 전 국회의원, 현 경영회장 안덕수, 초대 등산회장 역임하고 미남 배우를 무색케 한 유성준, 경영·상학 통합 동문회장을 성사시킨 이강훈, 등산회장과 세계 유수 산악을 정복하고 건강 회복 중인 이정구, 제물포 수재, 바둑·탁구왕 이항선, 마산고 인물, 골프 에이지 슈터, 경영회장 역임한 조재복, 강원도의 인물, 평화은행장으로 금융의 대가이고 장애인 후원 단체인 국제키퍼단 한국본부 총재를 역임한 황석희와 보은이 고향인 이경희의 해설과 안내로 법주사를 둘러보고 오는 점심때는 자연산 산채비빔밥에 동동주를 얼마나 마셨는가? 돌아오는 차 속에서 전 등산회장 권영기의 귀경길 사회 때 90명 이상 등산참석자 모집 시 몇 번이나 100만 원씩 협찬하신 왕회장 강동식이 이제는 50명 이상으로 낮춰 인원 초과 시 다시 100만 원을 협찬 시작하기로 약속한 과거가 있었고 황석희 행장의 러시아 특허 코로나 백신 생산, 수출 계획 발표, 만형 김헌희의 육사 재학과 64학번 고대 재학의 인연 설명이 있었다. 고속버스 전용 길로 씩씩 달려 도착한 서울, 저녁 식사 비용을 제공하는 집행부의 섬세한 배려에 감사하면서 즐거운 하루 여행을 끝냈다.

69 회장 이재선 / 제1총무 조현룡 / 제2총무 이영식

69석영회 산악회 봄날 산행 실시 ●●●

매달 월례 및 산행을 계속해오고 있는 69석영회 등산동우회는 특별히 4월 초에 화창한 봄날 청계산 매봉을 등정하며 유난히도 일찍 한꺼번에 개화한 꽃들, 화사한 꽃 터널을 동기들과 함께 멋진 산행을 즐겼다. 69석영회 산악회는 69석영회 단독방과 별개로 단독



석영회 등산회 봄날산행

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회원들은 정례 및 공지하는 번개 산행은 물론 수시로 심지어는 1인 산행까지도 불사하며 산행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박삼진 동기 웹소설 발간 ●●●

사회복지법인 행복공학재단 감사인 박삼진 동기는 '성경 속 여인들'이란 제목으로 전자북(E-BOOK)을 발간하여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등에 등록하였다. 책의 간략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성경 속 여인들〉은 신학자들이나 성직자들이 다루지 않았던 성경 속 여성 인물들의 이야기를 상세히 그려낸 책이다. 믿음의 여인들뿐만 아니라 실패한 여인들의 이야기도 포함하며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가 흥미롭게 전개된다. 구약으로부터 신약에까지 이르는 '성경 속 여인들', 때로는 우리와 같은 일상을, 때로는 비대한 그녀들만의 경험을 나누어 주는, 멀지만 가까운 사람들의 이야기...그들의 삶을 깊고도 가볍게 만나볼 수 있는 경쾌한 사림의 순간을 경험해 보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성경 속 여인들
(하와에서 성모마리아까지)

74 경영회장 조균환 / 사무총장 구자형

경영74 4월 남산걷기 (남산클럽회장 : 한호석) ●●●

● 일시 : 2023년 4월 1일(토)

매월 만나는 총무로 대한극장 앞에서 동기들 여섯 명이 모여 함께 남산을 향하였다. 남산에서의 벚꽃은 화사함의 절정이었다. 날씨가 좋아 상춘객도 많았다. 동기들은 서로의 안부를 전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거의 두 시간 조금 넘어 중구에 위치한 냉면 집에 또 다른 여섯 동기들이 합류하여 모두 12명이 조균환 동기회장의 건배 제의와 함께 막걸리와 빈대떡 그리고 식사로 냉면, 만둣국 등을 먹으며 본인들의 근황을 나누었다. 얼마 전 캐나다에서 왔던 동기는 불편한 몸을 이겨나가는 각오와 비법을 설명하였고 최근에 무릎이 나빠져 다리를 저는 동기는 당분간은 등산은 어렵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4월 22일 인왕산 둘레길 걷기행사, 6월 1일 경영74 정기모임, 내년도 5월 말이나 6월 초 입학 50주년 기념 일본방문 이야기를 나누었다. 1시가 넘어 구자형 총무는 자리를 정리하고 모임을 마무리했다. 특별히 몸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내년 일본여행 참석하겠다는 각오를 보여주는 동기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한다. 지난 번 장모상 조의에 감사하다며 식사를 대접한 임유순 동기에게, 동기회에 적지 않은 금액을 찬조한 캐나다에서 온 이승주 동기에게, 오늘 참석해준 많은 동기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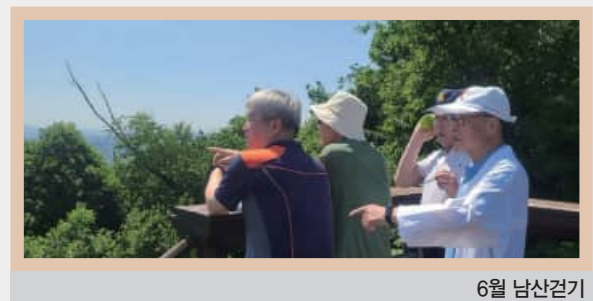


4월 남산걷기

경영74 6월 남산걷기 (남산클럽회장 : 한호석) ●●●

● 일시 : 2023년 6월 3일(토)

역시 남산행이다. 대한극장 앞에서 정확하게 9시 30분에 만난 경영74 5명의 동기들은 가볍게 걸었다. 남산 한옥마을 어느 넓적 바위 앞에서 인증사진을 찍고 예전 중정 남산분실을 지나 남산 둘레길로 접어들면서 마음껏 좋은 공기를 들이키며 멀리 구름 한 점 없는 아름답



6월 남산걷기



고 푸른 하늘을 마음껏 바라보며 둘레길을 걸었다. 갑자기 남산 소나무길이 우연찮게 개방된 것이 눈에 띄어 소나무길에 들어서 소나무 향도 맡으면서 작게 한 바퀴 돌고 오늘은 남산타워까지 올라가보자는 손정윤의 제안에 모두 그러하마하며 올라가는데 성벽 쪽으로 올라가자는 또 다른 동기의 제안으로 힘들지만 성벽의 역사를 상상하며 올라갔다. 이윽고 남산타워 정상에 다 달아 사방을 둘러보았는데 안산, 인왕산, 북악산, 북한산, 도봉산, 수락산, 불암산이 선명하게 보이고 예봉산, 검단산도 멀리 보였다. 사랑의 열쇠 꾸러미가 놓여있는 곳으로 올라가니 남쪽으로 청계산과 관악산이 보이고 저 멀리는 한강 너머 송악산도 보이는 듯했다. 그런 맑은 날씨속에 좋은 풍경을 볼 수 있었던 한호석, 구자형, 김세민, 정 영, 손정윤 이렇게 5명에게는 행운의 날이었다. 정상에서 시원하게 아이스크림도 맛보고 서둘러 내려오니 우리가 평소 매달 가는 냉면집에는 벌써 미국에서 온 최예락이 반갑게 보이고 김지섭, 이민호, 김희종의 반가운 모습이 보였다. 안암골 막걸리와 빈대떡과 편육까지 시키니 얼마나 멋진 안주상이 되었는가! 구자형 총무가 잘 나서지 않는 회장을 일으켜 건배 제의를 시키고 뒤늦게는 조형용이 도착하여 2차까지 가는 호사를 누려보았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 파이팅입니다!

74 무역회장 김희섭/ 무역총무 황채연

무역74 동화베트남 공장 방문 ●●●

무역74동기회(회장=김희섭)에서는 승명호(74 무역, 현 고대교우회장) 동화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동기 26명이 3박 4일 간(3월 29일~4월 1일) 하노이 동화베트남



김희섭 회장



황채연 총무



동화베트남공장 방문

공장을 방문했다. 항공료 및 숙박비 등 일체를 무료로 초청받은 이번 여행은 공장 견학과 더불어 하롱베이에 크루즈로 일박하며 아름다운 수 많은 섬과 일몰 일출을 감상하면서 동기들 간의 우의를 다졌다. 또한 배용근 하노이 교우회장(법학92), 민문기 주 베트남대사관 상무관(경제95), 신병철 한화에너지 베트남 법인장(사학88) 등 다수의 현지 후배들과의 식사 및 간담회를 통하여 해외에서 열심히 활약하는 후배들의 든든한 모습과 선후배 간의 끈끈한 고대 정신을 확인했다.

동화기업은 2021년 북부 하노이 인근 타이응우옌성 지역에 15만 평(50만㎡) 부지를 조성하여, 베트남법인 동화베트남 공장을 준공하여 현재 본격적으로 MDF 및 강화마루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미 2012년 베트남 남부 빈푸억성에 합작법인 VRG Donghghwa를 설립하여 MDF를 생산하고 있어 베트남 전국의 MDF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1948년 설립된 동화그룹은 목재 산업을 바탕으로 현재는 소재, 화학, 오토라이프, 미디어 사업을 영위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76 (회장 문덕식 / 총무 김덕만)

경영76 산우회 모임(대공원 둘레길) (산우회장 : 조구희) ●●●

봄비가 내리는 4월 18일(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단했던 경영76 산우회 모임을 2년 반 만에 재개하였다. 그동안 보지 못한 동기들을 만나는 기대와 설렘 속에 스틱과 간식을 준비하여 약속 장소로 나갔다. 아침 10시경 반가운 얼굴들 11명(김근배, 류만우, 박재홍, 박창호, 이기호, 이인영, 이종욱, 정희식, 조구희, 한중대, 한호림)이 모두 모여서 서울둘레길 4-2코스(양재시민의숲역~사당역) 7.9km를 걷기로 하였다.



산우회

봄비가 촉촉이 내리는 날씨가 걷는 내내 옷이 젖지는 않을까, 걷게 되는 숲길이 미끄럽지는 않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갈수록 내리던 비도 수그러들고 바닥에 야자 매트도 깔려있어서 산행을 안전하게 할 수 있었다. 70을 바라보는 우리 나이에 최근 히말라야 베이스캠프(5,550m) 등정을 마치고 돌아온 류만우 동기의 힘겨웠던 등반 후기도 듣고, 각자의 취미활동에 대한 즐거움도 서로 나누며 오랜만에 함께한 동기들과의 우정을 돈독히 하였다.

비가 오는 우중충한 날씨이기도 하고 진달래 산벚꽃도 거의 저서 좀 아쉬웠지만, 그래도 미세먼지가 빗물에 씻겨서인지 공기는 상큼하고 한낮의 더위는 피할 수 있어 좀 위안이 되었다. 신록으로 우거진 푸른 숲속 길을 걸으며 눈의 피로를 씻고, 연한 분홍색, 붉은색, 흰색 등의 화려한 철쭉꽃을 바라보며 걷다 보니 어느새 사당역에 이르게 되었다. 산행 후 동기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과 술과 대화를 즐기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78 회장 김일용 / 총무 정세종

경영78 등산모임(청계산 매봉) (산악회장 : 정세종) ●●●

● 일시 : 2023년 3월 11일(토)

오늘의 산행코스는 지하철 4호선 과천역 3번 출구에서 모여 서울대공원-1, 2호 약수터-청계산 매봉-5, 6호 약수터-농부네 갈비(뒤풀이)로 정하였다. 이날 등산모임에는 10명(강석현, 김병수, 박수영, 박재호, 상희찬, 안진철, 유병안, 유재권, 정세종, 최동원)이 참석하였다. 이날은 낮 최고 기온이 23도라서 포근하여 트레킹 할 때는 조금 땀이 날 정도로 좋은 날씨였다. 뒤풀이 '농부네 갈비'에서 맛있는 갈비 식사를 호스트 해준 박재호 동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각종 행사 후마다 생동감 있고 추억에 남는 동영상을 만들어 주는 강석현 동기에게도 항상 감사드린다.



청계산 매봉

경영78 등산모임(남산둘레길 산행) (산악회장 : 정세종) ●●●

● 일시 : 2023년 4월 8일(토)

오늘의 산행코스는 지하철 4호선 화현역에서 모여 안중근 기념관-남산도서관-자연생태길-국립극장-벚꽃길-와룡묘-백범광장으로 정하였다. 총거리는 약 6.7km이고 휴식시간 포함 3시간 정도 소요되었다. 점심 장소는 남산한옥 마을로 내려와 세종마마(정세종 동기)가 추천한 충무로역 근처 '남산도담'이었다. 이날 등산모임에는 8명(김병수, 김일용, 박수영, 상희찬, 안승배, 이계은, 이흥영, 최동원)이 참석하였다. 이날 트레킹에는 세종마마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여 산행 리더는 상희찬 동기가 대신하였다. 쾌청한 날씨만큼 참석 한 동기들 모두에게 상쾌한 기분의 하루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점심 식사 후에 맛난 커피와 후식을 제공한 박수영 동기에게 감사드린다.



남산



경영78 등산모임(수리산 둘레길) (산악회장 : 정세종) ●●●

● 일시 : 2023년 5월 13일(토)

오늘의 산행코스는 지하철 4호선 산본역 대합실에서 모여 수리산 둘레길을 편안하게 걷기로 정하였다. 이날 트레킹은 산본에 거주하는 신학기와 안진철 동기가 안내하였으며 코스는 군포시민체육광장 후문(등산로 입구)-밤바위정-감투봉-능내정-무성봉-임도오거리(하늘정)-수리동동썸밥집-철쭉동산-4호선 수리산역(해산)으로 정하였다. 이날 모임에는 12명(강석현, 계창민, 김관익, 김광희, 김일용, 박수영, 신학기, 안진철, 유재권, 정세종, 전현주(고대78여교우회 회장), 장경진(지질78))이 참석하였다. 이날 트레킹에 바쁜데도 불구하고 특별히 경영78 등산모임에 최초로 참석하여 등산모임을 화기애애하게 만들어 준 전현주 78여교우회 회장과 장경진 여자 동기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산본 맛집 '수리동동썸밥'집에서 기분 좋게 막걸리 한잔씩하고 전현주 회장의 합창단 모임 참석으로 시간이 촉박하였으므로 철쭉동산을 가는 대신 초막골 생태공원을 거쳐 수리산역에서 공식적으로 해산하고, 김일용, 김광희, 박수영 및 신학기 동기들은 근처에서 호프를 한잔하고 헤어졌다. 이날 점심식사 비용을 부담한 산본 거주 강석현, 신학기, 안진철 동기들에게 감사드리며 특히 아직 눈 수술로 100% 회복이 되지 않았는데도 점심 모임에 참석하고 멋진 동영상상을 만들어 준 강석현 동기에게 감사드린다.



수리산

79 회장 서학석 / 총무 오성호

경영79 문화모임(KUCC79) 11차 후기 ●●●

- 일시 : 2023년 4월 18일(화)
- 장소 : 한남동 리움미술관

어제 리움미술관에서 조선의 백자 185점을 감상하였다. 코발트와 철(鐵), 구리(銅)를 활용해서 다양한 색을 연출한 靑華, 鐵華, 銅華 백자의 품격, 아름다움과 매력을 한 공간에 압축해 '명품'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풍성하고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 일부 동기들은 고미술과 고려청자 등을 동시에 감상하는 기회도 가졌다. 저녁 회식은 '사랑의 불고기'에서 즐겁게 회식하였다. 흔쾌히 찬조해준 김정태 동기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한다. 회식 후에는 이성훈 동기의 제안으로 근처 '뮤직 라이브러리 센터'에서 즐겁게 청음하고 귀가하였다. 다음 12차 모임은 양희창 동기가 제안한 다산 정약용 박물관을 관람할 예정이다.



리움미술관 관람

경영79 축구모임(KUFC79) 김제여행 (회장 : 이상현, 사무총장 : 이영태) ●●●

- 일시 : 2023년 4월 20일 (목) ~ 21일 (금)
- 협찬 : 이상현 100만 원, 최수규 100만 원, 이대우 50만 원, 권순석(서종산 妻) 50만 원, 박병근 30만 원, 한병로 30만 원, 강득상 숙박 제공 및 보리쌀 2kg/인당, 홍현이(김택곤 妻)-김밥 조식 제공



김제여행

20일 아침 일찍 출발하여 22명(남16, 여6)은 전세 리무진 버스를 타고 김제를 향했다. 김제 고향에서 홍보와 체험교육의 일을 맡은 강득상 동기의 초청에 의해 계획된 여행이었다. 정안 알밤휴게소에서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새만금방조제를 따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따라 한참을 가다가 신시도, 무녀도를 지나 도착한 선유도 '해녀의 집'에서 우렁탕과 박대구이로 점심을 한 후, 멋진 모습의 망주봉을 보면서 유람선을 타고 선유도를 비롯한 대군산군도 일대를 일주하였다. 장민기와 이종훈 동기는 선상 무대를 카바레로 격상시키는 공연으로 유람선 많은 선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이어서 대장도 출렁다리를 걸어 대장봉(해발142m)을 등정하여 해무에서 솟아난 신선들이 사는 듯한 군도를 배경으로 사진을 남겼다. 하산하는 길에는 할매바위(9000만 년 전의 화산활동으로 생성)도 보았다. 약속된 장소인 김제의 심포드리에 도착, 마중 나온 강득상 부부와 장흥에서 묵히 중인 박재준 목사 부부가 합류하여 백합찜과 죽합 무침, 봉장이 조림으로 저녁 식사를 하였다. 식사 후에는 숙소로 마련된 홍보관에 꾸며놓은 노래방기와 함께 부부들의 노래자랑과 더불어 여흥의 시간이 이어졌다. 다음날 백합죽으로 든든하게 뱃속을 달랜 후에 도착한 곳은 간이축구장. 부부팀과 싱글팀으로 나뉘어 축구와 족구 한게임씩을 하며 건강한 장년의 힘을 발산하였다. 샤워 후에 도착한 곳은 전주. 유명한 '성미당'에서 비빔밥으로 점심을 한 후에 걸어서 전라감영을 지나쳐 전통성당과 경기전, 최명희 문학관, 동학혁명기념관 등을 돌면서 여행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아름다운 우정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초대해준 강득상 부부의 노고와 박재준 목사 부부의 참석으로 즐겁고 활기차고 재미있는 일정이 되었기에 특히 고맙고, 전주 시내 관광 안내를 해준 이대우 부부와 최수규 동기의 수고가 있었기에 더욱 보람칠 수 있었다. 또한 기획하고 진행한 이상현 회장과 이영태 사무총장의 노고에 안전하고 알찬 여행이 되었다. 사이사이에 오락을 진행한 장민기 오락전무와 함께 보조 맞추어 흥을 돋운 이종훈 동기의 신바람에 함께 즐거워할 수 있었다. 요래조래 고마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음에 안타까움을 느낀다.

경영79 2nd 정기모임 ●●●

- 일시 : 2023년 4월 24일 (월)
- 장소 : 통영장어구이

지난 2월에 이어 봄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였다. 이번에는 장어구이와 한 잔의 술로 우정을 익혀가는 시간을 가졌다. 오성호 사무총장의 개회로 소모임의 일상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최근 김제 여행을 마치고 온 KUFC79(축구회) 이상현 회장은 강득상 동기의 도움으로 부인 포함 26명의 여행이 순조로웠음을 보고했다. 또한 10월 가족체육행사와 11월 부부 모임, 와인 파티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이어서 산악회 김명국 총무는 5월 26일~27일의 1박2일 가평 '산토리니펜션'에서의 산악행사에 대해 소개했다. KUCC79(문화모임) 허만길 회장은 5월 15일에 있을 남양주 다산 유적지와 박물관 관람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당구회 이성훈 회장은 6월 16일~18일(2박3일)의 속초원정 정기대회에 대해 안내했다. 골프회장의 불참으로 인하여 사무총장이 월례대회에 이어 5월 14일에 일동레이크에서 가질 상반기 골프대회에 대해서 안내했다. 모처럼 오랜만에 참석한 이승일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 친구가 옆에서 도왔기에 살아났으며 외출 시에는 동행하는 친구가 필히 있어야 함을 강조했다. 정창우는 지난 연말부터 나왔지만 앞으로 친구들과 열심히 어울리겠다고 한 번 더 다짐했다. 서유창은 최근 교통법규의 변동 상황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장민기는 기분에 들떠 암송하는 시 가운데 2수를 읊으며 좌중을 즐겁게 해주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자리에서 서학석 회장은 가을에 속초에서 전체 모임을 2박3일로 진행하여 골프, 축구, 등산 등의 행사를 추진하겠다고 공지하여 모두의 갈채를 받았다. 참 아름다운 4월의 밤이었다.



2nd 정기모임

경영79 춘계골프대회 ●●●

- 일시 : 2023년 5월 14일 (일)
- 장소 : 일동레이크GC
- 경기결과 : 우승-정현채(신페리기), 메달리스트-임진규(79), 롱기스트-김정관(250m), 니어리스트-서종산(2m), 다보기-임영진(13개)



춘계골프대회



따뜻한 봄날 맑은 하늘 아래 32명 동기들이 맘껏 웃고 뛰놀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전원참가상 참가를 후원해준 임영진, 고품격 와인들을 후원해준 강현구, 김정관, 김진호, 서학석 총회장, 홀인원기념 전원골프공을 선물해준 이종훈, 작품 사진으로 늘 우리를 호강시켜주는 안희준, 개근 참석으로 늘 자리를 더욱 크게 빛내주는 서학석 회장, 일동레이크GC 일요일 황금시간대에 8팀을 부킹해주고 이번에도 테라스에서 멋진 바베큐파티를 선사해준 신동익 회장 그리고 이번 대회에 참석해 준 32명 동기들에게 무한한 감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우리 KUPGA가 더욱 즐겁고 행복한 모임으로 성장하도록 동기들의 많은 참여를 기원한다.

경영79 5월 정기산행 ●●●

● 일시 : 2023년 5월 26일 (금) ~ 27일 (토)

1일 차에는 서리산~축령산 한 바퀴 약 10km로, 축령산자연휴양림 제1주차장~서리산정상~축령산정상~남이바위~수리바위~원점회귀 코스로 진행했다. 등반 후 '산토리니펜션'(이영태 운영, 축령로 45번길 112)에서 집행부에서 준비한 램과 닭백숙과 막걸리, 소주, 맥주로 취하며 맑은 공기와 밝은 달과 해가 넘어간 까만 산을 병풍 삼아 저녁을 즐겼다. 2일 차는 오전부터 비가 예보되어 있어 천마산행을 접고 꽃축제가 열리는 자라섬으로 향했다. 자라섬은 경기도로, 남이섬은 강원도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음이 아이러니했다. 입구에 있는 자색 유채꽃을 시작으로 붉게 물든 꽃양귀비와 자태와 독일 붓꽃(아이리스)의 향에 취하며 크고 작은 이름 모를 꽃들에 묻혀서 걸은 거리 5km, 세계적으로 유명한 재즈 페스티벌도 열리어 커다란 잔디밭과 캐라반 캠핑장 등의 시설 등은 놀이 문화의 지평을 열어주는 공간이기도 했다. 비를 맞으며 귀가하는 중에 점심으로 들른 '어랑손만두국'에서는 유명한 만두전골과 손만두, 김치 등으로 배를 채우는 호사를 누렸다.



5월 정기산행

84 경영회장 윤영원 / 경영총무 이순규

경영84 골프대회 소식 ●●●

84학번은 3월 22일 3년 반 만에 골프대회를 실시했다. 여전히 부킹이 어렵고 내리지 않은 그린피 때문에 대회 진행 여부를 고민하였으나, 집행부의 노력으로 루트52CC의 티를 확보할 수 있었다. 평일임에도 16명의 성원이 모아졌다. 이번 대회는 오랜만에 재개되는 행사라 시상은 하지 않고, 화합과 대화에 집중하였다. 다만 대회의 중심이 당, 탈모, 부서진 이빨, 불면증 등이었는데, 자주 만나게 되면 개선되리라 본다. 다음 대회는 9월 20일과 11월 15일 일정이다.



골프대회

경영84 등산 소식 (산악대장 : 김홍석) ●●●

김홍석, 김용환, 김익겸, 박태영, 윤귀만, 윤종선, 이정근 동기는 관악산에서 6월 3일 9시 30분에 모여, 2분기 산행을 시작했다. 코스는 장군봉, 원호대사가 창건한 삼막사를 거쳐 안양예술공원으로 내려오는 경로로 7.6km, 3시간 걸리는데 이번에도 김홍석 산악대장은 척추와 관절에 무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했다가 주치의의 권고와 허락을 받은 김용환 동기도 적절하다고 느낄 정도로 절묘하게 코스를



관악산에서

곶랐다. 중간에 각자 싸 온 가래떡, 황남빵, 김밥, 사과, 방울토마토, 막걸리 등 간식을 먹는 시간도 즐거웠고, 하산해서는 막걸리를 중심으로 한 여흥으로 화합과 우애를 다지며 즐겁게 행사를 마쳤다. 다음 등산 일정은 10월 14일이다.

86 회장 정경모 / 총무 박재환

고경86 동기회 골프모임 - 호림원(虎林元) ●●●

경영86 동기회의 골프 모임은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혹서기 8월 제외하고 매월 셋째 주 토요일 3팀~4팀 라운딩을 하고 있으며 올해 첫 모임은 3월 25일(토)을 시작으로 4월 22일, 5월 27일 모였고 5월은 우천으로 취소되었지만 모인 김에 스크린골프장에서 아쉬움을 달래기도 하였다. 50대 중반을 달리고 있는 나이로 점차 퇴직과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고 있어서 그런지 동기들과 모임이 더욱 유대감이 끈끈해지고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든다. 올해부터 골프회장을 맡은 유재열 회장과 강봉주 총무를 중심으로 전 회장인 김준성 동기를 협동 총무로 영입하여 주말 주초를 이용한 1박2일 코스를 기획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등산 모임인 마루회와 합동으로 홍콩지부 방문하여 등산과 골프를 즐길 예정이다. 내년도에는 정기모임은 주중 골프로 하고 회장배 골프대회를 주말에 개최하는 계획을 검토 중이며 다양한 행사를 기획 준비하고 있다.



3월 호림원

고경86 동기회 등산모임 - 마루회 ●●●

또 하나의 동기 모임이 마루회다. 마루회는 매 격월 첫째 토요일에 산행으로 동기들의 단합과 동기애를 확인하는 자리다. 작년까지는 험한 산행 위주였으나, 올해부터는 50대 후반을 달리고 있는 무릎 상황을 감안하여 편안한 등산 및 다양한 코스를 개발하여 많은 참여를 유도 중이다. 1월 8일 청계산, 3월 4일 아차산, 5월 13일 안산자락길을 다녀왔으며 7월, 9월, 11월 계속적으로 마루회는 동기들을 부르고 있다. 산행을 끝내고 동기들과 마시는 한잔의 막걸리는 말이 필요 없는 보약이다. 11월에는 홍콩으로 산행 및 골프를 계획 중에 있다.



5월 마루회

92 회장 최강근 / 총무 윤선규

경영92 C반모임 ●●●

- 일시 : 2023년 5월 23일(토)
- 장소 : 선히골프클럽

매년 봄 혹은 가을에 동기들과 함께하는 골프 모임을 진행하고 있는 92학번 C반 동기들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의 아지트 격인 선히



C반 골프모임



힐프클럽에서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번에는 특히 1명의 결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성욱 동기의 배우자가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었다. 늘 그래왔듯이 골프 모임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술 모임과 다를 바 없는 음주량을 기록하며 이번 모임도 성황리에 마무리하고 다음 모임을 기약하였다.

809 회장 정경모(경영86) / 총무 최윤석(무역87)

809 베어트리파크배 골프대회 ●●●

809모임(회장=정경모(86))은 2023년 4월 7일 금요일 포천의 푸른솔CC에서 9개 팀 35명의 809 회원들이 참여하여 라운딩을 즐기면서 선후배 간의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본 대회는 809 초대 회장 이선용(80) 전 회장이 후배 사랑의 마음을 모아 메인 스폰을 하면서 코로나시기 3년을 제외하고는 10회에 걸쳐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전통 있는 대회이다. 신페리오 방식으로 개최되었던 이 대회에서 우승의 영광은 원규식(86) 회원이 차지했다. 본 대회는 809 골프회(회장=문호규(86))에서 주관하면서 어느 대회보다도 풍성한 후원 속에 골프총무(이정환(89))의 위트있는 사회로 다양한 시상식이 진행되었다. 준우승은 현성환(87) 회원, 메달리스트상은 김상연(80) 회원, 다파상은 임동배(85) 회원, 다보기상은 임상길(85) 회원, 롱기스트상은 정경모(86) 회원, 니어리스트상은 이선용(80) 회원, 행운상은 김평국(89) 회원이 수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809모임은 앞으로도 선후배 간의 이어져가는 친목을 다지면서도 경영대학의 발전과 재학생을 포함한 후배들의 좋은 멘토가 될 것을 다짐했다. 다음 모임은 809 문화행사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했다.



베어트리파크배 골프대회

809 상임 서포터스 첫 모임 ●●●

809 모임(회장=정경모(86))의 역대 회장 및 골프회장들은 지난 5월 18일 목요일, 신사동 왕스덕에서 중요한 모임을 가졌다. 바로 '상임 서포터스'라는 조직의 첫 모임이었다. '상임 서포터스'는 막중한 책임을 가진, 쉽지 않은 자리인 809 회장직을 수락한 신임 회장과 회장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자는 취지로 역대 809 회장, 골프회장들이 뜻을 모아 만들어진 지원조직이다. 계기는 82학번 여용동 809회장 이후로 83, 84, 85학번이 여러가지 사정으로 809 회장직을 건너뛰게 되었고 우여곡절 끝에 86학번의 정경모 교수가 맡기로 하면서 그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809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 기존 회장님들의 적극적 지지의 의미로 809 회장 및 회장단을 위한 공식 지원조직을 만들자는 발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향후, 상반기 하반기 연 2회 정기모임과 필요시 번개 모임을 통해 809의 지속적 발전과 회장단 지원을 위한 방법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구성원은 아래와 같다.



상임서포터스

- 정회원 : 이선용, 김상연, 박수근, 조한홍, 송재현, 김경용, 여용동, 조명제, 구승회
- 총무 : 정용태, 권태우
- 읍저버 : 정경모, 최윤석 (총 13명)

향후 자기 회장 선출 시에는 현 회장은 정회원으로 가입된다.

첫날 회의 이후, 첫 결정 사항은 지원조직의 명칭을 결정하는 투표를 통해 ‘(가칭)809 상임 고문단’이라는 임시 명칭을 ‘상임 서포터스’라는 정식명칭으로 정하는 것이었다. 앞으로 제5대 809 회장단을 지원하면서 809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수고해 주실 809 상임 서포터스의 출범을 알려드린다. 지금까지도 809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역대 809 회장님, 809 골프회장님들께서 다시 큰 수고를 자임해주셔서 감사드리고 809 전 회원들은 뜨거운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909 회장 최창규(경영90)

909 상반기 골프대회 ●●●

● 일시 : 2023년 4월 29일(토)

● 장소 : 라비에벨CC

● 라운딩 결과 : 다더블보가-김연희,
김영일, 김 언/다보가-윤희준, 정현승,
안성수/다파-한휘선, 최창근, 최길상,
안성수, 김민엽/다버다-윤선규, 윤희도,
이규원, 김영일, 윤희준/롱기스트-윤선규,
안성수, 천영석, 김연희/니어-윤희준,
윤선규, 이규원, 김연희/신페리오 우승-★
이규원, 윤선규, 최창근

● 찬조 : 최창규(90)-사인 골프공 세트, 전체 커피 제공/한휘선(91)-저녁 뒤풀이 제공/윤선규(92)-캘러웨이 ERC 골프공 1더즌/최창근(92)-백화점 상품권(20만원), 최길상(93)-구글 네스트 허브/윤희도(93)-고급 와인 2병/이규원(95)-이도곰탕 외식 상품권(10만원), 김연희(96)-랩시리즈 3종 화장품 세트/김민엽(96)-고급 와인 2병/안성수(96)-생활용품/윤희준(97)-타이틀리스트 보스턴백/김영일(97)-백화점 상품권(10만원)/김 언(97)-보온보냉 텀블러/정현승(98)-볼빅 골프공, 스벅 텀블러(보한정판), 치약세트/남광민(99)-크롬 소프트 3더즌



골프대회

지난해 오크밸리CC에서의 첫 번째 대회 이후 반년 만에 23년 상반기 골프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작년 12월 열혈 참석 신청한 16명의 멤버 모두 100% 참석하는 역대급 출석률을 기록했다. 대회 전날 설레임 반, 날씨에 대한 걱정 반으로 잠을 설치고, 연휴를 맞이하여 엄청난 정체와 비를 뚫고 분당 기준 3시간을 달려 라비에벨CC에 도착했다. 우리 909만의 아지트와 같은 청실룸에는 보고 싶었던 909 골프 멤버와 함께 정성 가득한 찬조 물품이 가득가득 차고 넘쳤다.

정갈한 아침식사를 하고 김영일 프로(97)가 주도하는 소주파의 소주를 마시고, 최창규 프로의 아메리카노를 손에 들고 출동했다. 비바람이 너무 심해서 계획한 12시 30분 단체 촬영은 라운딩 종료 후에 찍는 것으로 하고 바로 카트를 타고 출발했다. “대회를 캔슬해야 하나? 아니다~! 그래도 하늘을 믿어 보자~!” 시원한 빗줄기는 첫 홀이 지나면서 약해지더니 세 번째 홀부터 쾌적하고 시원한 날씨가 되었다. 때때로 불어오는 비와 바람이 링크 코스에 있는 듯한 기분 좋은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코스에서 보이는 이국적인 계단식 논(?)은 베트남 어디쯤에 온 것 같은 정취를 자아냈다.

굿샷보다 망 때리는 샷이 더 많이 나왔고 실시간 대회 스코어에서 909 골프회장님의 ‘another Level’스코어를 보며 잠깐 반성도 했지만,

전반 끝나고 그늘집에서 막걸리 먹고 우당탕탕 OB에, 헤저드에... "그래~ 이것이 진정한 주말 골퍼지~"라며 라운딩을 마치고, 멋진 단체사진을 찍고 뜨끈한 사우나 탕에 몸을 맡기니 세상 부러운 것이 하나도 없었다. 찬조 물품이 너무 많아 어떻게 나눌지 행복한 고민을 하며 클럽하우스 식당에서 마련해주신 주꾸미와 갈비찜을 먹으며 재미난 뒤풀이 시상식 시간을 보냈다.

KUBS Ladies 회장 이충진(경영8) · 학생대표 김지선(경영21)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학교가 활기를 되찾는 동시에 저희 KUBS Ladies 역시 다양한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다가가고자 노력하였다. 우선, 재학생 집행부 19기 리크루팅을 진행하여 올해 활동을 함께할 새로운 부원들을 맞이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개강 이벤트를 진행하였으며, 5월 15일 성년의 날 이벤트를 진행하여 학생들의 성년이 된 날을 기념하고, 추억할 수 있는 날을 만들어주고자 하였다. 또한 경영대 대동제를 위하여 100만 원을 후원하는 등 학생들에게 다양한 추억을 남겨주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위해 노력중에 있다.



KUBS Ladies 18,19기 단체사진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 오픈 행사 ...

1년 동안 진행될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의 오픈 행사를 3월 31일 LG-POSCO 경영관 쿠키흔에서 진행하였다. Good Evening 멘토링 프로그램은 2014년부터 매년 진행해온 프로그램으로, 약 8개월 동안 커리어와 인생 전반에 대한 멘토링을 진행하며 소중한 인연을 만들어가는 프로그램이다. 법조계, 컨설팅,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분야의 교수들에게서 멘토로 참여해 주시고 계시며, 오픈 행사를 통해 한 해간 진행될 멘토링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고, 멘토와 멘티들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



Good Evening 오픈 행사

Dream Concert 행사 진행(부제: 디자인 씽킹, 축적의 힘) ...

또한, 매학기 진행되는 'Dream Concert' 행사 역시 성공적으로 진행을 마쳤다. 5월 19일, 현대자동차경영관 B204호에서 진행되었고, 오프라인으로 진행함과 동시에 온라인으로도 실시간 송출하여 더욱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도록 하였다. 현재 카이스트 교수로 재직 중인 윤용진 교수(기공96)의 창업과 공학기술 관련하여 강연이 있었다. 스타트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있었고, 참여한 학생들은 이번 행사가 자신의 진로 결정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을 그려나가는 데까지도 도움이 되었다는 반응을 보여주었다.

KUBS Ladies casual 모임 소식 ...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KUBS Ladies casual 모임 역시 4월 12일에 재개하여, 오랜만에 다양한 학번의 교수들과 재학생들이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지난 3년간 닫혀 있던 여학생 휴게실을 개방하여 경영대 여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교수들에게 학생들이 궁금해할 만한 것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받는 KUBS Women 콘텐츠도 재개하여 학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언제나 저희를 지지해주시는 교수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갈 KUBS Ladies를 향한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KUBS Ladies casual 모임

교우회보 <호상>은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립니다.

교우회보 <호상>은 교수님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만들어집니다.

특별히 알리고 싶은 교수님의 소식이나 모임 소식,
게재를 원하는 수필, 시, 칼럼, 여행기, 만화, 관심 있는 주제를 다룬 글 등의
자료를 보내주시면 교우회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의 사항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TEL 02-922-3762

· FAX 02-922-3763

· E-MAIL kubs@kubs.or.kr

교 개교 118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

-개교 118주년 도약을 위한 비전선포식-

118th Anniversary of Korea University | 2023. 5. 5.



‘고려대학교 개교 118주년 기념식 및 고대인의 날’행사 개최

삼천리그룹 이만득(경영77)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수상

5월 5일(목) 오전 10시 인촌기념관에서 열린 기념식에서는 2025년 개교 120주년을 맞는 고려대의 발전계획 및 비전에 대한 발표에 이어 ▲자랑스러운 고대인상 ▲사회봉사상 ▲발전공로상(크림슨 어워드) ▲KU Pride Club Award ▲석탑강의상, 석탑연구상, 석탑기술상, 석탑국제협력상 ▲석탑공로상 ▲장기근속자 표창 ▲고대가족상 ▲모범지부분회 표창 등 시상식이 있었다.

이날 행사에서 김재호 학교법인고려중앙학원 이사장은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변화하며 예측 못한 위기의 시대를 지내고 있다. 그 어떤 대학보다 치열하게 고민하고, 그 누구보다 용기 있게 도전해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한다. 이러한 혁신은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신임 총장님의 리더십을 지지하며 2025년 고려대 개교 120주년을 세계적 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원 고려대 총장은 “미래사회에 공헌하는 대학으로의 발전과 건전한 재정과 균형 발전, 개교 120주년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 고려대가 세계 명문대학으로 도약하는 발

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동원 총장은 “구성원 모두가 더 빛나는 미래를 위해 혁신의 길을 함께 걸어갈 때, 반드시 강한 고려대의 영광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승명호 고려대학교 교우회장은 “2년 후 맞이하게 될 개교 120주년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을 본격적으로 다지기 시작했다. 민족의 대학을 넘어 명실상부한 세계적 명문대학으로 발돋움하는 고려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해 공헌하는 인재 교육의 전당으로서 그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해야하며 이를 위해 구성원 모두가 하나 된 마음으로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자열 고려대 발전위원장은 “개교 118주년을 맞은 고려대는 앞으로 인류의 미래에 희망을 제시하는 대학으로 도약할 것이며 이 담대한 여정에 모두가 함께 하길 바란다. 고려대 120년 역사와 전통은 새로운 미래 120년을 이끌어갈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이며 고려대의 힘이 미래 사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모교의 명예를 드높인 교우를 선정해 시상하는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은 문규영 아주그룹 회



자랑스러운 고대인상-이만득·경영77 (왼쪽에서 두번째)

장(농학70) 과 이만득 삼천리그룹 회장(경영77)이 수상했다.

문규영 교우는 1977년 농학과 졸업 후, 콘크리트 분야 사업부터 벤처캐피탈 사업에 이르기까지 과감한 결단력과 탁월한 경영능력으로 아주그룹을 성장시켰으며 '사업보국' 경영철학과 사회공헌사업 등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후배들을 위한 각종 장학금 및 발전기금 등을 꾸준히 기부해왔고 고대경제인회창, 고려대 의료원 발전위원회 공동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모교와 고려대 의료원 발전에 크게 기여해왔다.

시상식에서 문규영 교우는 “2018년 이미 크림슨 어워드를 받아서 기쁨이 컸는데 이제 더 큰 책임감을 느낀다. 나 혼자만의 공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감사드리고 싶은 분들이 많다. 36만 고대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히 고대 경제인회 회원들께도 감사의 인사 전하고 싶다. 앞으로 모교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득 교우는 1981년 경영학과 졸업 후 에너지 전문기업 삼천리그룹을 국내 최대 도시가스기업으로 성장시키는 탁월한 경영능력을 보였다. 도시가스, 민자발전 및 집단에너지사업, 생활문화사업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 다각화 및 글로벌 경영 트렌드 선도 등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 또한 모교와 후배들을 위해 석원경상관을 건립하여 기부하는 등 꾸준한 모교사랑을 몸소 실천해왔다.

시상식에서 이만득 교우는 “과연 이 상 받을 자격 있나 생각해봤다. 아직 많이 부족해서 수상을 고사했었는데 교우회에서 많은 격려를 해주셨다. 지금껏 무관심했던 모교 발전과 교우회 발전에 남은 시간을 작게나마 힘쓰겠다. 우리그룹을 성장, 발전시켜서 나눔과 베품의 정신으로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다. 그리고 내 자신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자랑스러운 고대인에 손색없이 살고 싶다.”고 말했다.

3대에 걸쳐 고대생을 배출한 가족에게 수여하는 상인 고대 가족상에는 오택진(경제52) 교우가족, 어윤기(경영55) 교우가족, 김승수(물리60) 교우가족 이렇게 세 가족이 상을 받았고 근속 10년차, 20년차, 30년차에 해당하는 교직원이 받는 장기근속상에 20년 근속한 임춘택(무역89) 교우 외 174명의 교직원이 표창장을 수상했다.

또한 이날 많은 비가 쏟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학내 곳곳에서 고대가족과 지역주민을 위해 여러 행사가 펼쳐졌다. 오전 9시~오후 5시까지 고려대 박물관 자유 관람 및 해설 투어(도슨트)가 진행됐고, 오후 12시 30분부터는 SK미래관 로비에서 고려대 입학사정관이 직접 1:1 상담하는 자리도 열렸다. 오후 1시 민주광장에서는 고려대 79학번 졸업생들의 아카펠라 중창단, 재학생들의 ATP(버스킹), TERRA(힙합), 농악대의 공연이, 오후 2시 SK미래관 최충현 홀에서는 의과대학 조경환 교수의 성인병 및 노인질환에 대한 특별 강연이 있었다.

www.korea.ac.kr



장기근속자 표창-임춘택(20년 근속)·무역89 (오른쪽에서 두번째)



“환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실현하겠습니다”

2023년 1학기 장학증서 수여식 개최

2023학년도 1학기 고려대학교 경영대학(학장=김상용) 장학증서 수여식(이하 수여식)이 5월 18일, LG-POSCO경영관 안영일 홀에서 개최됐다. 수여식에는 수여자인 주식회사 코삭 허천구 회장, 청평화시장 운영위원회 서광수 감사, 경영대학 배종석 교수, KPMG삼정회계법인 이창훈 상무, 경영대학 95학번 동기회장 이도곰탕 이규원 대표, (주)KCC 양성일 상무, 김상용 학장 등 내빈과 경영대학 장학생 70여 명이 참석했다.

먼저 김상용 학장의 인사로 수여식이 시작됐다. 김상용 학장은 “경영대학은 가정형편이 어려워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이 없도록 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다”며 “기부자님들의 따뜻한 마음과 정성 덕분에 장학제도를 올해도 이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밝히며 수여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이어 “KUBS Dream Scholarship에는 지금까지 600여 명의 기부자들이 참여했고 이를 통해 381명의 학생이 학업에 정진하게 되어 진심으로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다음 순서로 장학증서 수여가 이어졌다. 이번 학기에는 △허천구 Dream Scholarship △서광수 Dream Scholarship △은민 Dream Scholarship △KPMG삼정회계법인 고려대학교우회 장학금 △엠앤제이문화복지재단 장학금 △KUBS Dream Scholarship △95드림케어 Dream Scholarship 외에도 13개의 장학금을 통해 163명이 장학 혜택을 받았다. 기부자와 김상용 학장은 학생들에게 장학증서를 수여하

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허천구 회장은 “복잡한 세상에서 수준 높게 잘살고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것을 넘어서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노력해 고풍스럽고 실력 있는 리더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배종석 교수는 “우리는 새로운 아이디어와 지식을 창출하고 세상을 바꾼 사회적 리더를 양성하는 것이 큰 목적”이라며 “공동성을 추구할 줄 알고 세상을 생각할 줄 아는 리더로 거듭나길 바란다.”는 바람을 전했다.

최유현(경영22) 학생대표는 “장학금 덕분에 심리적 부담을 버리고 일상 속 행복을 발견해 나갈 수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어 “기부자분들의 성의에 정말 감사드리고 저 또한 내리사랑을 베푸는 멋진 어른이 되겠다.”는 소망을 밝혔다. 정예서(경영22) 학생대표는 “미래를 향해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계시는 장학생들을 대표해 기부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기부자분들께 배운 환원의 정신을 이어받아 훗날 저 또한 그 정신을 사회에 실현하는 어른이 되는 것이 꿈.”이라고 전했다.

참석한 학생들과 수여자들이 함께 교가를 제창하고 단체 사진을 촬영하는 것을 끝으로 장학증서 수여식이 마무리됐다.

경영신문 701호 발제

2023년도 회비·분담금 납입 집계

2023.1.1~2023.6.28 기준

<1000만원>

89 학번 이동섭 회장

<500만원>

57 학번 이상일 자문위원
65 학번 이학수 자문위원
67 학번 허창수 명예회장
72 학번 구자열 자문위원
72 학번 김 윤 부회장
74 학번 송명호 부회장
75 학번 허경수 부회장
76 학번 이 범 부회장
80 학번 정몽규 부회장
88 학번 최철원 (400만원) 부회장
89 학번 정의선 부회장
95 학번 이상호 부회장
00 학번 천영석 부회장

<300만원>

80 학번 이선웅 부회장
95 학번 신재욱 부회장

<100만원>

63 학번 어윤대 고문
64 학번 강동식 부회장
66 학번 박성훈 자문위원
66 학번 최용순 자문위원
66 학번 황병조 자문위원
70 학번 김광식 부회장
70 학번 이창희 부회장
70 학번 한대곤 부회장
72 학번 양승은 부회장
72 학번 최성진 부회장
73 학번 정기련 부회장
74 학번 강호갑 부회장
80 학번 변대현 부회장
80 학번 정학현 부회장
85 학번 정창훈 (103만원) 부회장
87 학번 홍종성 부회장
88 학번 전찬혁 부회장
89 학번 김평국 부회장
89 학번 서희원 부회장
90 학번 민준선 부회장
90 학번 최창규 부회장
92 학번 강정훈 부회장
94 학번 김형인 부회장

97 학번 심 건 부회장
(익명)

<50만원>

53 학번 이윤재 자문위원
60 학번 박판제 자문위원
62 학번 최부웅 상임이사
66 학번 박창덕 상임이사
75 학번 최강호 상임이사
77 학번 김병채 상임이사
78 학번 임재풍 상임이사
79 학번 정몽진 상임이사
81 학번 김연수 상임이사
81 학번 송재현 상임이사
84 학번 배형근 상임이사
86 학번 정서진 상임이사
87 학번 현성환 상임이사
93 학번 강준환 상임이사

<30만원>

62 학번 김종순 이사
89 학번 한규제 상임이사

<20만원>

67 학번 박우양 자문위원
69 학번 박지덕 상임이사
71 학번 이태희 상임이사

<10만원>

이사

53 학번 이호용
54 학번 김진배
55 학번 김기인
60 학번 이용휘
61 학번 김길남 박순자 성영일 채규학
62 학번 안기정 오무환
63 학번 김형덕 이승철 이영무
64 학번 안상철 정제성
65 학번 이창윤 최병일
66 학번 신진철 신현욱
67 학번 김용동
69 학번 맹인재 신현웅 이정주 조현룡
71 학번 권관순 최윤도
72 학번 문덕인 이원창
73 학번 김순배 현기춘
74 학번 윤명상

75 학번 강태성 김석태 김우진 김창경
76 학번 김덕만 배유현 서윤덕 이법호
이원직 장진원
77 학번 이용모
78 학번 경석현 류한호 박재호 홍 승
79 학번 김원환 김진호 민경섭 방용원
안성경
80 학번 정백조
81 학번 김재범 박점열 유한수
84 학번 위성훈 최병권
85 학번 구준서 임 욱 정병욱
86 학번 오인환 양근섭 황택현
88 학번 박동진 최성민
93 학번 염규상
96 학번 주민근

일반교우 <3만원>

52 학번 김영섭
53 학번 엄기정
54 학번 김동진 이종은 이종환 조태규
조해연 태호팔
55 학번 김영식 김정식 남치현 박상호
신문철 이득주 이승재 이형구
정삼택 황중환
56 학번 김지영 신명철 윤길림 이기홍
이연상 조해균
57 학번 구인본 김문석 김영철 김재곤
정기원
58 학번 남태현 박성업 박성준 사윤진
이종철 천정호
59 학번 권병용 김무남 김종길 박형문
양재관 오의희 윤석문 이기홍
이윤제 이응두 이의방 이창용
장순덕 한순영
60 학번 광병화 구자옥 김광평 김동선
김만용 김삼경 김상호 김형자
노수범 성윤경 신준호 이일구
조대작 최덕형 하정일 한국언
한기정
61 학번 김도민 (10만원) 김소현 김윤장 김홍곤
김활자 라석균 박무용 박엽엽
박진자 송일웅 신현성 안희민
엄무성 양규철 유기현 윤영범
이경순 이근창 이봉현 이 완
이원태 이재영 이학주 정의철
조 경 황인강
62 학번 김광태 김세영 김인채 김재우
김종진 김효명 배영일 백효휘

	석영부	엄종대	염직환	유병하
	윤중철	이순영	이인영	이호웅
	정길원	한상욱		
63 학번	김시균 (10만원)	김지창	남 훈	박규환
	박종일	백선기	옥규석	정보영
	정완영	한건수		
64 학번	고병선	김동훈	김상규	김인식
	민선용	유명식	이항선	정철현
	조종래	허석도	홍현목	
65 학번	박태인	이경찬	이정수	
66 학번	김명진	김응한	박민규	박용혁
	성순환	신경조	염수열	오창석
	장철기	전재영	정순달	정연동
	조대현			
67 학번	김덕수	김 택	신병창	이계남
	조용건	한기석	한상규	
69 학번	김영호	오세원	정영목	
70 학번	강명구	제 철		
71 학번	강동석	김영규	김재원	박상우
	박용우	윤정열	홍승철	
72 학번	고재영	김영만	김종현	박동원
	유대준	이건희	장석산	정우성
	조승식	황선일	황순기	
73 학번	손대정	이인철		
74 학번	김주화	김태규	박남식	박영식
	박용운	이철범		
75 학번	김우태	김 훈	김희환	양진식
	이재원			
77 학번	김대철	이찬근	임동하	

78 학번	김광희	김일용	박수영	신학기
	오빈영	유승식	윤연식	이병일
	이주용	이흥영	정세종	조항웅
79 학번	백종일	양원목	정운창	황보평
80 학번	김병조	김태현	유지열	조현찬
	최유성			
81 학번	김신철			
82 학번	김지환	박경수	박준재	이성우
	정지호			
83 학번	김윤호	김정욱	윤여실	
84 학번	강운구	김병남	김억석	김홍석
	윤종선	이창구	정병철	홍제연
85 학번	박승하	신강영	신호섭	윤상규
86 학번	김좌영	서동욱	유재열	
88 학번	피승호	하종문		
89 학번	고경의	서계원	지영삼	
90 학번	강승모	김형기	이은기	장원석
91 학번	윤성환	이상수	조성일	
92 학번	김재형	김창영	문명호 (6만원)	
93 학번	오명일	윤성재		
94 학번	김도윤	박형현	이강진	
95 학번	김천석	이규열	이규원	전영철
	지재홍			
96 학번	손희중	이명준	이준희	
98 학번	이재등	한경선		
99 학번	윤창영			
00 학번	박 진			
01 학번	이소윤			

02 학번	손현선	양지혜	전현석	최석준
03 학번	김정환(C반)	오병원		
04 학번	김형태			
05 학번	강종범	공진표	윤종혁	이근호
	이현호			
07 학번	임재형	정대호 (18만원)		
08 학번	신재호			
09 학번	노범래	서수양	신현집	전태희
	정석현			
10 학번	강용구	김혜린	박정훈	윤승원
	장세명			
11 학번	김은별	설유나	송웅기	한은경
12 학번	신수정	황지민		
14 학번	이진원			

학번별 분담금

62 학번	500,000
66 학번	500,000
70 학번	1,000,000
77 학번	1,000,000
79 학번	1,000,000
88 학번	1,000,000
89 학번	1,000,000

평생회비(30만원)

79 학번	서종산
80 학번	노장서
93 학번	윤희도

감/사/합/니/다.

경영대 교우회 연회비 납입

입금계좌



KEB 하나은행 391 - 910009 - 79704

예금주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교우회

경영대 교우회비, 임원분담금 납부는 가장 큰 교우회 사랑입니다.

아시아 최고를 넘어 Global 30위 경영대학과 교우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3

회비 및 분담금
납부현황

일반연회비

달성

63.2%

목표 16,000,000원

실적 10,110,000원

기별분담금

달성

40.0%

목표 20,000,000원

실적 8,000,000원

임원분담금

달성

67.7%

목표 164,000,000원

실적 111,100,000원

TOTAL

2023년 6월 28일 기준

목표 200,000,000원

실적 129,210,000원



달성

64.6%

교우님들의 협조와 임원님들의 큰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COSMO
최고를 향한 새로운 도전!



물류창고 가치는 높이고 부담은 덜어주는 자율주행로봇 나르고 오더피킹

물류창고에서 작업자의 이동 업무를 자율주행로봇이 대신합니다



트위니가 궁금하다면?



구매문의 042-866-8225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0 ✉ salescontact@twinny.ai



YOUTUBE



WEBPAGE

***Anytime
Anywhere***



MIGHT & MAIN(주)

사장 최 철 원 (무역88)